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6. 1

외교부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 정책 효과 중심의 지표체계 운영 및 국민 체감도 높은 성과 견인
 - (효과 중심) 계획·시행단계 대비 결과단계 평가 비중을 40:60으로 유지하고 성과지표를 통한 정량평가에 더해 '정책 효과성' 지표 운영을 통한 정성평가 병행
 - (국민체감도) '소통 24'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국민 체감·만족도가 높은 성과에 대해 최대 0.5점의 가점 부여
-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적 관리)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16개에 대해 △원인분석, △연초 개선계획 수립 △반기별 점검 등 연중 과제 추진·보완 상황을 점검
 - (개선 유도)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담당 부서의 성과 개선을 유도 하기 위해 개선 노력(반기별 점검 협조·추진계획의 충실도) 및 1차 평정(소위별) 결과 개선에 대해 가점 부여
- ☐ 성과관리 제도의 완성도 제고
 - (투명성·공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관리과제별 점수 및 위원별 평정 근거를 과제 담당 부서에 적시 공개
 - (신뢰도)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 (소위 대면보고회) 관리과제별 연간 실적 보고 및 각 소위 평가 위원 의견을 수렴·환류하는 계기 마련
 - (총괄평가위원회) 3년 만의 총괄평가위 대면 개최로 내·외부평가위원 간 및 소위원회 간 피드백을 통해 최종 평가 결과의 합리성·객관성 확보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주요정책부문) 구성

구 분	구 성	기 능
전체위원회	• 위원장 1인 • 위원 24인	•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 심의·의결 • 자체평가 계획·결과 심의·의결 • 상·하반기 성과관리 이행상황 점검 • 주요 문서 심의, 주요 정책 사항 결정
소위원회 (1~5소위)	• 소위원장 1인 • 위원 3~5인	•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제공 • 평가 대상 과제 이행상황 점검 •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1차 평가 실시
총괄평가 위원회	• 위원장, 소위원장 5인, 기획조정실장^(내부)	• 1차 평가 결과 심의·검토 및 최종 결과 의결 • 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 평가지원팀 운영

구 분	운영지원 부서	기 능
평가지원 총괄팀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 자체평가 절차 운영 총괄 •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성과관리계획 및 평가자료 총괄·취합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1소위 운영지원팀	아태2과	• 소위원회 운영 총괄 • 소위 자료 취합 • 평가지원 총괄팀 및 각 과·팀(관리과제) 담당 부서와의 연락 및 업무 협조 • 소위별 자체평가위원과의 소통
2소위 운영지원팀	아세안협력과	
3소위 운영지원팀	유엔과	
4소위 운영지원팀	디지털공공외교과	
5소위 운영지원팀	북미경제외교과	

□ 평가방법

- 58개 관리과제에 대해 소관 과제를 100점 만점으로 평정(소위별), 소위 간 편차를 보정한 점수에 항목별 가·감점을 부여한 뒤 총괄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등급 확정(S, A+, A, B+, B, C+, C)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58개 관리과제 담당 63개 외교부 과·팀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방법(측정기준)
계획단계 (10)	계획수립의 적절성 (5)	▸ 전략·성과목표와 연계성, 관리과제 추진계획의 구체성 정성평가
	계획단계 소통·환류 (5)	▸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자체평가위원 등의 의견 반영 여부 정성평가
시행단계 (30)	정책추진 노력 (10)	▸ 관리과제 추진계획 대비 세부일정 준수율 정량평가
	중간단계 환류 (5)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 점검결과 검토의견 반영 및 미흡사항 개선 여부 정성평가
	변화 대응성 (15)	▸ 상황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현장의견 수렴 노력 등 정성평가
결과단계 (60)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30)	▸ 성과지표의 대표성(상/중/하) 정성평가 ▸ 목표치의 적극성(상/중/하) 정성평가 ▸ 목표치 달성여부 정량평가
	정책효과성 (30)	▸ 당초 의도한 효과 발생정도 정성평가 ▸ 부수적 효과 정성평가 ▸ 향후 기대효과 정성평가
가·감점		▸ 정부과제 등 기여(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국민체감도, 부진과제 개선, 기한·분량 준수

2. 평가결과

(1) 총 평

- ☐ '25년도 총 63개 과(팀)의 58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S등급 2개(~5%), A+등급 9개(~20%), A등급 9개(~35%), B+등급 17개(~65%), B등급 9개(~80%), C+등급 9개(~95%), C등급 3개(~100%)로 나타남.
 - 우수(A+) 이상 과제는 △중동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4-①) △해외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공고화 등이며, 미흡(C+) 이하 과제는 △한중일 3국 협력의 제도화·내실화 및 서남아·태평양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Ⅰ-3-③) △유라시아 국가(러시아·벨라루스·코카서스3국)에 대한 맞춤형 실용외교 추진(Ⅱ-3-③) △대유네스코 외교 및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지식공공외교 추진(Ⅳ-1-④) 등인 것으로 평가됨.
- ☐ 총 58개 관리과제의 11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 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100%(초과달성)로, 전년(99%)대비 성과목표 달성률이 개선되었음.

(2) 주요성과

- ☐ △중동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4-①) △해외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공고화(Ⅳ-3-①) 2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 바,
 - △시리아와의 수교로 대중동 외교 기반을 강화하고, △대중동구상(S.H.I.N.E. 이니셔티브) 발표를 통해 중동 지역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한 점 등이 긍정 평가되었으며,
 - △해외 대규모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한 점과, △해외안전상황실 중심의 24시간 대응 체계, 해외안전여행 플랫폼 고도화, 관계기관 간 협업 구조 개선 등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 노력이 높게 평가됨.

(3) 개선·보완 사항

- ☐ △한중일 3국 협력의 제도화·내실화 및 서남아·태평양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Ⅰ-3-③) △유라시아 국가(러시아·벨라루스·코카서스3국)에 대한 맞춤형 실용외교 추진(Ⅱ-3-③) △대유네스코 외교 및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지식공공외교 추진(Ⅳ-1-④) 3개 과제는 개선·보완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어려운 대외여건 속 한중일 협력을 지속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받은 한편, △3국 협력이 실질적인 협력 단계로 내실화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과, △정세 변화 속에서도 기존 협의 채널을 지속 가동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대러 제재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 △코카서스 3국 및 벨라루스와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 기반 조성 제언이 있었음.
 - 유네스코를 포함한 지식공공외교 분야에서 다방면 성과가 평가된 한편,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의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노력 강화, △외국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대적인 지식공공외교 콘텐츠 발굴 등이 개선·보완사항으로 제시되었음.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한미 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Ⅰ-1-①)	B+
우리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외교적 기반 강화 및 북한 정세·정책 협의 확대(Ⅰ-1-②)	C+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여건 조성 및 해외 탈북민 보호·지원(Ⅰ-1-③)	B+
한미동맹 기반 강화 및 한미일 협력 발전(Ⅰ-2-①)	A+
북미 지역 내 친한 네트워크 구축 및 다변화(Ⅰ-2-②)	B
한미 안보협력 증진 및 현안 관리(Ⅰ-2-③)	B+
한·미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현안 관리(Ⅰ-2-④)	B+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Ⅰ-3-①)	A+
서남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Ⅰ-3-②)	B+
한중일 3국 협력의 제도화·내실화 및 서남아·태평양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Ⅰ-3-③)	C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Ⅰ-4-①)	A+
한중간 협력 기반 공고화 및 우호정서 증진(Ⅰ-4-②)	A
중앙아시아 5개국 및 몽골과의 협력 강화(Ⅰ-4-③)	B
해양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1-①)	B+
대륙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1-②)	B
아세안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Ⅱ-1-③)	B+
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2-①)	A
중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2-②)	C+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및 중남미 관련 대국민 외교활동 강화(Ⅱ-2-③)	A
서유럽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3-①)	B+
중유럽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3-②)	A+
유라시아 국가(러시아·벨라루스·코카서스3국)에 대한 맞춤형 실용외교 추진(Ⅱ-3-③)	C
중동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4-①)	S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걸프 마그레브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4-②)	C+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4-③) ^(공동)	B+
국제 평화안보 증진 등 유엔과의 협력 강화(Ⅲ-1-①)	A+
국제사회 인권 보호·증진 관련 선도적 역할 강화(Ⅲ-1-②)	A
전략적 원자력 외교 추진(Ⅲ-1-③)	B
사이버·테러 등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Ⅲ-2-①)	C+
군축·비확산 규범 형성 및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Ⅲ-2-②)	A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수출통제·제재 외교 추진(Ⅲ-2-③)	A+
조약 체결을 통한 국익 제고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Ⅲ-3-①)	B
국제법을 통한 외교정책의 법적 기반 강화로 당당한 외교 실현(Ⅲ-3-②)	B+
독도 영유권과 해양 권익 수호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 강화 및 인식 제고(Ⅲ-3-③)	C+
국제개발협력 의제 주도를 통한 글로벌 협력과 연대 강화에 기여(Ⅲ-4-①)	C+
선진적·전략적 무상개발협력 추진 및 개발협력 파트너십 확대(Ⅲ-4-②)	C+
우리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의 효과적 개발협력 추진(Ⅲ-4-③)	A+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다자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추진(Ⅲ-4-④)	B
국민 공공외교 확대 및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을 통한 K-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Ⅳ-1-①)	B
대유네스코 외교 및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지식공공외교 추진(Ⅳ-1-②)	C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K-컬처 확산 문화외교 추진(Ⅳ-1-③)	B+
글로벌 사우스, G7 등 공공외교 대상 지역 다변화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에 적극 기여(Ⅳ-1-④)	B+
디지털 플랫폼 및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Ⅳ-1-⑤)	B+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대외 아웃리치 강화(IV-2-①) ^(공통)	B
외교·안보정책,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연구 및 학술교류(IV-2-②)	B
해외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공고화(IV-3-①) ^(공통)	S
영사서비스 개선(IV-3-②)	B+
여권업무 선진화(IV-3-③)	A
G20 등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참여 및 대응 강화(V-1-①)	A
경제협정 체결 및 관련 국제규범 논의 참여·대응(V-1-②)	B+
지역 경제공동체와의 협력 강화(V-1-③)	A+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V-2-①)	C+
북미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수입규제 대응(V-2-②)	A+
유럽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지원 경제외교 강화(V-2-③)	A
경제안보외교 역량 강화(V-2-④)	C+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외교 강화 및 동북아 환경협력 제고(V-3-①)	B+
다자환경분야 현안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외교 추진(V-3-②)	B+
핵심·신흥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외교 강화(V-3-③) ^(공통)	A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한미 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B+
평가결과	잘된 점	○ 북한의 핵보유국 지정사실화 정책 추진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동력이 많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견지하고, 한미 협력을 통해 동력을 살려 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음. ○ 북핵 관련 중국, 러시아와의 소통 재개 ○ 국내 정치적 혼란에도 신속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공유한 것을 성과로 평가함. ○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함. ○ 북핵 관련 한미일, 한일 협의 등을 통해 대북정책 기초와 공조를 유지한 것은 주요 성과라고 평가함 ○ 북핵 대화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협의/한일간 협의 통해 대북정책 기초를 확인함으로써 '코리아패싱'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잘한일임. ○ 신 정부 출범후 한미 간 신속한 대북공조 체제 마련한 점
	개선할 점	○ 대북정책, 특히 '비핵화' 정책 분야에서 통일부와의 혼선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으니, 더 적극적인 정책 조율 노력을 기울이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외교부가 한미협의를 중심에 있어야 함. ○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 + 중국/러시아의 실질적 협력 확보 필요 ○ 한국의 비핵화 3단계론과 END Initiative에 대한 미국의 명시적 지지 입장이 확인되지 않음. ○ 한미양국 사이에 정상회담 등 다양한 협의가 열렸으나 미국의 대북한 행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국 정부의 E.N.D 정책과 합치하는지 등이 앞으로 규명·보완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봄 ○ 다만 적대적 두국가론을 견지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추가 전략이 필요함. 이 경우 한미 공조의 틀을 흔들리지 않도록 대북 정책 조율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통일부와의 소통 강화에도 신경써야함. ○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확대 위한 노력이 요구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67/5	-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했음. - 국내정치적 혼란 상황에도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북핵 위기의 위중함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였음. - 추진계획이 구체적이며 수립된 계획이 적절함 - 매우우수 - 과제 추진 계획의 세부일정 잘 제시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33/5	- 대체로 평가 의견이 반영됨 - 전반적으로 반영됨. 다만, 한국의 비핵화 3단계론과 END Initiative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관련된 내용이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더불어 국내 정부 기관 외에도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 반영이 필요했음. - 평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소통 등이 잘 됨 - 우수 - 비핵화위해 중단-축소-폐기 단계적 전략 마련은 평가함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일정에 맞춰 정책 추진한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보임 - 정상 추진됨. - 계획된 사업을 정상 추진함. - 노력의 진정성 평가. 매우 우수. - 정상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5/5	- 대체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함 '남북 대화재개 필요성'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노력 제고(강화) 필요성 - 상기한 자체평가 위원 검토 의견 일부가 미반영됨 -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완조치를 잘 취함 - 매우 우수 - 신정부 출범 이후 적저란 개선 보완이 이뤄짐

	2-3. 변화 대응성	14.33/15	-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이에 조응하는 노력을 보임 - 한중관계 개선 모멘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 활용 필요성 - 북한이 부과하는 위협이 지속되는 등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었으나, 북핵 위협에 특정한 대처는 위급성을 고려할 때 적극성이 더 필요했다고 판단함. -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밀착에 대응하려 노력함 - 매우 우수함. - 정세변화에 따른 변화 대응을 비교적 잘 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5/30	-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보임 - 성과지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설정 필요성 - 북핵 위기라는 한국의 실존적 최대 위협에 대한 대응의 중요도와 미국내 동 문제의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업무의 난이도가 높음을 감안하여 '성과의 질'에 가산점을 부과함. - 고위급 협의 등 목표치 달성 - 성과지표에 대표성이 있음 - 비핵화 진전 여건 마련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의 추진 - 북핵 미사일 자금차단 관련 국내외 공조 잘 이뤄짐
	3-2. 정책 효과성	28/30	- 주어진 여건에서 거의 최대치의 목적 달성을 이뤄낸 것으로 보임 - 정성적 차원에서 좋은 평가를 해야 함. - 중,리 등 비핵화 관심 감소 - 한미일 비핵화 협의 강화를 평가함 - 정상외교가 중요한 상황에서 의제 선정 등을 적절히 함 - 국민의 안보불안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은 평가할 만 - 북미, 남북대화 추진 기대감 높아짐

평가결과	잘된 점	○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해야 함. 특히 UN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이 눈에 띈. ○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 ○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 및 설득 노력이 확인됨. ○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평가할만함 ○ 북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력한 결과 북한의 대미 탐색전 전개 양상을 잘 포착한 것으로 평가함. ○ 미일 등 주요 우방국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개선할 점	○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두박두박 걸어가야 할 것임. 북한인권 관련 목표를 상정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임. ○ 보다 다양한 국제 행위자의 지지 확보 필요성 ○ END Initiative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발전, 이를 대외에 전달하는 노력은 일부 제한됨. ○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에서 외교 권한을 가진 외교부가 확실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개선할 점이라기 보다는 내년도 초 방종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 계기에 김정은과의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부분에 더 외교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을 외교무대로 끌어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 요구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결과 4.83/5	평정근거 및 제언 ○ 체계적이고 실제 과제가 반영된 계획 ○ 국내정세 혼란에도 적극적인 목표 설정 ○ 적절함 ○ 매우 우수 ○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3/5	○ 평가 의견 반영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임 ○ 북한 비핵화 3단계론에 대한 과의 환류 노력이 제한됨. ○ 소통이 진행됨 ○ 매우 우수 ○ 소통 환류 비교적 잘 이뤄짐
2-1. 정책추진 노력	9.33/10	○ 일정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임 ○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함 ○ 우수 ○ 일정 충실함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중간 단계 평가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대체로 기울일 것으로 보임 ○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논의가 제한됨 ○ 보완조치를 취함 ○ 매우 우수 ○ 환류 잘 이뤄짐
2-3. 변화 대응성	13.83/15	○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외교적 노력의 초점이 여전히 북한 인권에 치우쳐 있는 등 새 정부의 방향성에 부응하려는 노력 제고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아세안 국가의 협력이 충분히 확인되지는 않음. Global South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변화 대응성이 좋음 ○ 변화대응 잘 이뤄짐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67/30	○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목표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질적 차원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 성과지표가 북한 정세/정책 분석에 치우쳐 있고, 그 결과 해당 부서의 노력 또한 국내에 치우친 경향 ○ 적극성 측면을 정성 평가한 결과 전술한 이유로 ‘중’으로 평가함 ○ 목표치를 달성함

		○ 성과지표가 구체적임 ○ 목표치 달성 정도 높음 ○ 북한정세, 정책분석 지수 높은 편
3-2. 정책 효과성	27.5/30	○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관련된 성과를 인정해야 함 ○ 외교적 노력의 초점이 특정 국가군에 치우쳐 있음 ○ END 구상과 비핵화 3단계론 등, 한국의 구체적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시적 지지는 확인되지 않음. ○ 정성적인 평가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임. ○ 의도한 효과를 거둠 ○ 향후 기대효과가 큼 ○ 신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아웃리치 보통 ○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 보통

3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여건 조성 및 해외 탈북민 보호·지원		B+	
평가 결과	잘된 점	○ 탈북민 관련 법 체제 정비를 추진한 점이 눈에 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탈북민 보호 노력 내실화 ○ 국내정치 혼란에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외 노력이 확인됨. ○ 대북정책 관련 한미양국 간에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노력을 열심히 함 ○ 조기대선과 신정부 출범이라는 다소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대북 정책 조율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탈북민 보호에서도 적극성이 보임. ○ 탈북민 관련 법령 체제 정비 통해 탈북민 보호 및 입국지원의 실효성 제고			
	개선 할점	○ 반이민 정서와 반외국인 정서가 강화됐고, 자국 이기주의가 심화된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해외 탈북민 보호 및 지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지표에 더 반영해야 할 것임. ○ 외교 노력 전개 대상 국가 확대, 다원화 필요성 ○ ENE 구상의 구체성, 대외지지 등은 여전히 한계가 노정됨.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한미양국의 공동 대북정책이 확실하게 견지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힘쓸 필요성이 있음 ○ 통일부와의 대북 정책 소통 강화에 주력해야하며,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은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교력을 경주해야 함. ○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아웃리치 전개가 요구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67/5	○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 구체적 과제가 반영된 계획 ○ 적절함 ○ 매우 우수 ○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3/5	○ 대체로 평가 의견을 반영하려는 계획 설정 ○ 적절함 ○ 매우 우수 ○ 소통 환류 잘 이뤄짐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 노력 경주 ○ 충실함 ○ 우수+1 ○ 일정 충실함
	2-2. 중간단계 환류	4.83/5	○ 중간 단계 의견 반영하려는 노력 대체로 경주 ○ 타 부처와의 소통은 그 정도면 충분함 ○ 매우 우수 ○ 중간단계 환류 잘 이뤄짐
	2-3. 변화 대응성	13.67/15	○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 노력 대체로 경주 ○ 가시적 성과 필요 ○ END 구상에 대한 미국, 일본, EU 등 우방국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구체적 지지 도출에 한계가 노정됨. ○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함 ○ 변화에 대한 대응성 좋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83/30	○ 성과지표의 적극성과 대표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지표상의 목표를 달성함 ○ 성과의 질에 1점 가산점 부여 ○ 한반도 평화 유지·정착 위한 가시적 노력과 성과 필요 ○ 국내정치적 혼란 하 업무 진행의 어려움과 실제 성과를 고려하여 1점의 가산점을 부과함. ○ 목표치에 적극성이 있음 ○ 성과지표도 우수함 ○ 탈북민 유관부처와의 협의 적극 추진 ○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좋음
	3-2. 정책 효과성	28/30	○ 신정부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 국가의 범위와 폭 확대 필요 ○ END 구상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이 제한됨. 남북관계 재정립에 특별한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둠 ○ 향후 기대효과가 큼 ○ 밀착형 탈북민 보호 지원 체계 보완정비 평가 ○ 북한이탈 주민법 등 법령개정 통해 업무역량 제고

4		한미동맹 기반 강화 및 한미일 협력 발전		A+	
평가결과	잘된 점	○ 미국의 신 행정부가 기존의 한미 및 한미일 제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살려 가려는 노력이 돋보임. ○ 한미관계 안정화 ○ 신정부 출범 후 단기간 내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미동맹 기반 강화의 실적이 확인됨. ○ 기존 한미일 협력도 지속의 동력을 확보함 ○ 계엄과 트럼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중요한 도전과제들을 잘 해결함 ○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설정에서 큰 성과를 거둬 일각에서 한미 관계 갈등 가능성을 걱정했던 것을 일축한 것은 높이 평가함. ○ 정상회담 통한 한미동맹 안착 평가함			
	개선할 점	○ 한미일 협의체가 정상 차원에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니, 실무 차원에서는 제도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임. ○ 한국의 국익,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방안 마련+제시 필요 ○ 한미간 확장억제와 관련하여 이전보다 강화된 근거는 확인이 불가함. 대북공조 차원에서도 비핵화 3단계론과 END 구상 등에 대한 미국의 명시적 지지가 확인되지 않음. ○ 쉽지는 않지만 조지아 사태 같은 돌발상황을 방지할 사전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음 ○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 언제 나올지 모를 트럼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만전 태세 요구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적절한 계획에 구체적인 과제와 일정이 반영되어 있음 ○ 수립한 계획이 적절함 ○ 매우 우수 ○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3/5	○ 대체로 평가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적절하게 소통함 ○ 매우 우수 ○ 소통 환류 좋은 편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계획에 충실한 업무 추진을 했다고 판단됨 ○ 충실하게 노력함 ○ 매우 우수 ○ 일정 정상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중간 평가 의견을 대체로 잘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노력 반영이 제한됨. 미국과의 구체적 협의나 한국의 입장 등이 아직 확실치 않음. ○ 적절함 ○ 매우 우수 ○ 중간 단계 환류 대체로 적절함
	2-3. 변화 대응성	14.17/15	○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성이 돋보임 ○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국 방어 공약이 이전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아지거나 빈도 등도 줄어듦 ○ 위기를 신속해결하는 등 변화대응성이 좋음 ○ 변화 대응성 좋은 편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8/30	○ 대체로 적극적인 목표치를 제시했고, 이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질적 차원에서 성과 점수, 1점의 추가 점수 부여 ○ 우리 국익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한미관계의 불안정성 완전히 해소했는지에 대한 우려 지속 ○ 한미정상회담 조기 성사 및 한미동맹 기반 마련의 분명한 성과가 있으므로 가산점 3점을 부여함. ○ 목표치가 매우 적극적임 ○ 성과지표도 명확함 ○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평가 ○ 한미일 협력 지속적 강화 평가
	3-2. 정책 효과성	28.33/30	○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됨 ○ 한미 협력 과제 관리가 더 중요해진 것으로 보임 ○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와 관련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음. ○ 정책이 효과를 거둠 ○ 향후 기대효과도 큼 ○ Joint Fact Sheet 발표는 평가 ○ 한미일 협력에 관한 인식 제고 평가

5		북미 지역 내 친한 네트워크 구축 및 다변화		B	
평가결과	잘된 점	○ 여전히 미국 정치에서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 됨. 외교부가 외곽에서 나름 지원을 잘한 것으로 사료 됨. ○ 적극적인 아웃리치 노력 ○ 새정부 출범 직후 한미, 한캐나다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래 북미 지역 친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노력이 확인됨. ○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북미지역 내에 친한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다변화해 구축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미의원연맹 창설 등 북미지역내 친한 네트워크 구축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음. 캐나다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도 국방분야 협력의 틀이 심화된 것이 부각됨. ○ 차세대 핵심 신흥분야(조선 인공지능, 원자력 등) 미국 내 외교 외연 확대를 위한 활동을 평가함			
	개선 할점	○ 의원외교에서 외교부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지만, 계속 외곽에서 지원해야 함. 한미의회교류센터가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유권자연맹을 활용할 방법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함. ○ 적극적 아웃리치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안 마련 ○ 다만,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새로운 노력이 확인되지는 않음. ○ 활동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 등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적사안이라기보다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미의원연맹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67/5	○ 구체적인 과제가 반영된 적절한 계획의 수립 ○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음. ○ 적절함 ○ 매우 우수 ○ 대체로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평가 의견 등을 대체로 반영하려고 한 계획의 수립 ○ 적극적으로 소통함 ○ 매우 우수 ○ 소통 환류 잘 이뤄짐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계획에 충실한 정책 노력 경주 ○ 일정이 충실함 ○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과 ○ 일정 정상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중간 평가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미 의회, 특히 상하원 공화당 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한국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 배가 필요'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전 연도와 차별성이 부각되지는 않음. ○ 적절함 ○ 매우 우수 ○ 중간 단계 환류 잘 이뤄짐
	2-3. 변화 대응성	13.67/15	○ 변화하는 환경에 대체적으로 잘 대응한 것으로 보임 ○ 보다 적극적 노력 통해 가시적이고 실질적 성과 도출 필요 ○ 한국 신정부 출범과 119개 연방의회 출범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대응 정도는 이전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음. ○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하는 등 변화에 잘 대응함 ○ 변화 대응성 좋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28/30	○ 적극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목표치를 설정했고 이를 달성함 ○ 보다 적극적 목표치 설정 통해, 조지아 사태와 같은 좌절과 실패 재현 방지 필요성 ○ 목표치에 적극성이 있음 ○ 성과지표에 대표성이 있음 ○ 북미지역 주요인사 데이터 베이스 현행화 달성 평가 ○ 미국 내 여론주도층 대상 아웃리치 평가
	3-2. 정책 효과성	27.83/30	○ 의도한 정책 효과가 대체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더 다양한 네트워크 통로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미 의회나 미국내 한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노력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결과 등을 확인하기가 제한됨. 실제 효과 발생 자체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확인 안됨. ○ 부수적 효과도 특별한 사항이 확인 안됨. ○ 대미 의회 외교나 대 캐나다 외교는 의도한 효과를 거둠 ○ 향후 기대효과도 큼 ○ 미국 내 싱크탱크 한국에 대한 호감 인식 제고 파악 ○ 미국 여론주도층의 한국 이해도 향상

6		한미 안보협력 증진 및 현안 관리		B+	
평가결과	잘된 점	○ 핵추진 잠수함 협력 논의 개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 팩트 시트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 재확인 등, 괄목할 성과가 있었음. ○ 적극적 노력 통한 일부 가시적 성과 도출 ○ 신정부 출범 이후 조기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안보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한미간 동의를 도출한 노력이 돋보임. ○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선제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고 미국측의 긍정적 호응을 이끌어 냄 ○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측의지지 확보라는 큰 성과가 있었음. ○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점 평가			
	개선 할점	○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는 별개로 우라늄 농축 및 폐연료 재활용에 대한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시각과 이익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 ○ 확장억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한반도 공약과 실행 제도 등이 이전보다 제한됨. ○ 핵잠 관련 협력이나 전작권 협의 방향 등이 현실보다 정치권 등의 말이 앞서가도록 놔두는 상황은 아쉬운 점임 ○ 위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보다 치밀한 대미 협의가 필요함.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당부. ○ 한미일 안보협력의 안정적인 지속 추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구체적 과제가 반영된 대체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함 ○ 적절함 ○ 매우 우수 ○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평가 의견을 대체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경주함 ○ 소통이 잘 이뤄짐 ○ 매우 우수 ○ 대체로 소통 환류 잘 이뤄짐	

	2-1. 정책추진 노력	8.83/10	○ 일정에 맞춰 충실히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함 ○ 미추진 사업 4개(타부서 모두 정상 추진함)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가 연기되는 등 일정이 지켜지지 않음. ○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함 ○ 최고의 성실한 노력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인선의 지연으로 다소 정책추진의 지연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중간 단계 피드백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대체로 기울였다고 판단됨 ○ 다양한 협의가 있었지만, 확장억제 공약 자체는 이전보다 가시성이 떨어짐. ○ 확장억제 협의 등에 적극 참여함 ○ 매우 우수 ○ 중간 단계 환류 비교적 충실함
	2-3. 변화 대응성	14/15	○ 환경 변화에 잘 대응했던 것으로 보임 ○ 한미 동맹의 '현대화' - 우리 국익에 부합하고, 신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변화 대응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확장 억제와 관련된 회의 연기 등에 대한 문제도 노정됨 ○ 능동적으로 대응함 ○ 매우 우수(미측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 강조) ○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능동적 대응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3/30	○ 적극적 목표치를 설정해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어려운 환경에서 안보 관련 협의가 잘 이뤄진 점에 1점 가산점 부여 ○ 미국의 시각이 아닌, 한국의 시각과 이익에서 접근 필요성 ○ 확장억제와 관련된 목표치의 적극성이 일부 제한됨.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미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성과가 돋보여 추가 점수 2점을 부여함. ○ 어려운 여건에서 목표치를 잘 설정함 ○ 성과지표에도 대표성이 있음 ○ 신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한미 안보협력 안정적 추진 평가 ○ 한미일 안보협력 관련 협의 실시 평가
	3-2. 정책 효과성	28.67/30	○ 상당한 성과에 정성적 차원의 점수를 잘 줘야 함. ○ 우리의 이익-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반영할 필요 ○ 확장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작동이 이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동맹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함 ○ 향후 기대효과도 큼 ○ 한미안보협력 지속적 추진 평가 ○ 동맹 현대화 계기로 국방력의 획기적 강화 추진한 점 평가

7	한·미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현안 관리			B+
평가결과	잘된 점	○ 한미 사이에 SMA 재협상 논의가 불거지지 않은 것은 어쨌든 성과라고 할 수 있음. SOFA에 대한 잡음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 등도 성과임. ○ 업무 범위의 확대 ○ 한미조선협력 관련한 노력이 돋보임. ○ 한미양국의 조선. 방산 협력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한미동맹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평가할 수 있음 ○ 한미 방산.조선 협력 강화라는 큰 성과가 돋보임. ○ MASGA 본격추진을 위한 근거 및 추동력 확보한 점 평가		
	개선 할점	○ 음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SOFA 뉴스레터는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음. ○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보다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집적을 통해 자료화할 필요 ○ 조선협력을 제외하고 이전연도와 크게 차별화되는 성과나 활동은 확인되지 않음. ○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대미 협의, 국내 현안 해결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으로 기존에 용산시대에 주력했던 용산기지 반환이 다소 이완되지 않도록 미측과 협의를 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방위비 분담 및 기지 소유 등과 관련한 트럼프 리스크 철저한 관리 요망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구체적인 과제가 반영된 적절한 계획의 수립 ○ 적절함 ○ 매우 우수 ○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검토 의견을 대체로 잘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적절히 소통함 ○ 매우 우수 ○ 대체로 소통 환류 잘 이뤄짐	
	2-1.	9.67/10	○ 일정과 계획에 따라 정책 과제를 추진했음	

	정책추진 노력		○ 정상적으로 추진함 ○ 일정에 따른 정상적 정책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중간 검토 의견을 대체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적절히 반영함 ○ 대체로 중간단계 환류 잘 이뤄짐
	2-3. 변화 대응성	14.17/15	○ 변화에 잘 대응했음 ○ 조선 방산 협력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부각되었지만, 부서 특성상 전반적 변화가 없는 지속 사업이 다수임을 감안하여 평가함. ○ 변화에 잘 대응함 ○ 대체로 변화 대응 잘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달성도	27.33/30	○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무난히 달성함. 초과 달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1점 가산점을 보탬 수 있을 정도의 성과임 ○ 방위비 분담 재조정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노력 보이지 않음 ○ 조선업 협력을 제외하고는 이전 연도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사업을 수행했음을 고려하여 적극성 분야를 평가함. ○ 목표치를 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좋음 ○ 한미 방산협력 관련 협의 충실하게 추진 평가 ○ 관련 목표치 상향 이룩
	3-2. 정책 효과성	28.33/30	○ 정성 평가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음 ○ 1회성, 단기적 이슈보다 핵심적 업무에서 성과 도출 필요 ○ 의도한 효과를 거둠 ○ 향후 기대효과가 큼 ○ MRO 합의 등 실질적 한미 조선협력 기반 마련 ○ SOFA 현안에 대한 안정적 관리

8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A+	
평가결과	잘된 점	○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 ○ 한일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이후 서툰 외교를 통해 한일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함. ○ 복원된 한일관계를 정권 교체 이후에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이재명 출범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잘 불식시켰고, 특히 다카이치 신임 총리 이후 한일 관계 관리를 잘 했음. ○ 양국의 정상교체에도 불구하고 발전적 한일관계 기조 유지 확인된 것은 큰 성과			
	개선할 점	○ 한일 관계의 발전이 한미일 관계 심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야겠음. 한일 관계에서 휘발성이 있는 이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것임. ○ 관리를 넘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 ○ 구조적-장기적 과제이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제한됨. ○ 한일관계 강화가 대미, 대북 전략 수행과정에서 계속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공조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럼에도 징용 문제나 독도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돌출발언 등이 예상되는 만큼 한일 관계 우호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력을 경주해야 함. ○ 과거사 독도 등 갈등 사안에 대한 전략적 관리 더욱 신경을 써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웠다고 판단됨 ○ 적절함 ○ 매우 우수 ○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3/5	○ 대체로 평가 의견을 반영한 계획임 ○ 소통이 잘 이뤄짐 ○ 매우 우수 ○ 소통 환류 잘 이뤄짐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대체로 일정에 맞춰 정책 추진 노력을 기울임 ○ 사업을 정상 추진함 ○ 매우 우수 ○ 일정의 정상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5/5	○ 대체로 중간 평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추진함 ○ 사도광산 관련 일측과 보다 원활한 합의를 바람. ○ 의견이 잘 반영됨 ○ 매우 우수 ○ 개선보완 등 중간단계 환류 좋음
	2-3. 변화 대응성	14.33/15	○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함 ○ 사도광산 관련 대응이 제한됨. ○ 변화된 상황에 잘 대응함 ○ 우수 ○ 변화에 잘 대응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17/30	○ 대표성 있는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목표치를 달성함 ○ 목표치- 초과달성, 달성, 일부 달성 등 혼재 ○ 적극성- 중 ○ 과거와 관련하여 일측 전향적 자세 견인이 일부 제한되어 초과달성으로 판단하지 않음 ○ 목표치를 달성함 ○ 성과지표가 구체적임 ○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 대화 교류 채널 잘 가동됨 ○ 한일 60주년 사업 등 원활한 시행
	3-2. 정책 효과성	28.83/30	○ 한일관계 복원의 추동력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함 ○ 일부 현안(독도, 역사 문제)- 계속해서 제기됨 ○ 의도한 효과를 거양함 ○ 향후 기대효과가 큼 ○ 매우 우수 ○ 공공외교 대국민 소통 원활하게 추진 ○ 상호인식 조사 결과 한일협력 필요성 상당한 개선 보임

9		서남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		B+	
평가결과	잘된 점	○ 호주 및 인도와의 협력 심화 노력이 눈에 띈. ○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협력 시도 ○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유의미한 교류와 협력, 실제 성과를 도출함. ○ 한-뉴질랜드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방산, 핵심광물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고 외교부의 외교성과를 감각적으로 잘 대국민 홍보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해당지역에서 한국 기업 들의 사업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음. ○ 인태지역의 소다자 협력 강화한 점 평가			
	개선할 점	○ 인도와의 협력은 방산 협력을 더 심화하고 전략적 차원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어야겠음. ○ 업무의 전체적 방향(성) 제시 필요 ○ 중요도를 판단할 때 인도와의 교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단기성 혹은 특사 방문이 아닌 2+2회의의 정기 개최와 같은 제도화된 교류 체제 구축이 요구됨. ○ 올림픽 유치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에 대비해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특별히 없음 ○ 인태지역 협력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대 국민 소통 강화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구체적인 과제가 반영된 계획을 적절히 수립함 ○ 적절함 ○ 매우 우수 ○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대체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평가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임 ○ 소통 노력이 좋음 ○ 소통 환류 적절함 ○ 매우 우수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계획한 일정에 맞춰 과제를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사업을 정상 추진함 ○ 매우 우수 수준 ○ 일정에 맞게 충실하게 추진함	

	2-2. 중간단계 환류	4.5/5	○ 대체로 중간 평가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한인미, 한호일과 같은 소다자 회담이 확인되지 않음 ○ 검토 의견을 반영함 ○ 매우 우수 ○ 중간단계 환류 잘 이뤄짐
	2-3. 변화 대응성	13.83/15	○ 대체로 변화에 잘 대응한 것으로 보임 ○ 인도와 소다자 협의가 제한됨 ○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함 ○ 변화 대응성 좋은 편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3/30	○ 대표성이 높은 목표치 설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목표를 달성함 ○ 적극성- 호주, 인도 등과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 협력 모색 필요 ○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목표로 하였지만, 성과가 없었음. 소다자 회담도 제한됨. 그러나, 뉴질랜드와의 관계 격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므로 추가 점수 1점을 부여함 ○ 목표치를 잘 달성함 ○ 성과지표가 구체적임 ○ 고위급 면담 및 비대면 회의 원활 추진 ○ 국내정세 어려운 속에서도 고위급 교류 확대 및 협의체 신규 출범
	3-2. 정책 효과성	27.67/30	○ 인도 관련 정책에 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할 듯 ○ 소다자 협력체가 활성화 정도가 제한됨. ○ 핵심광물과 관련한 구체적 성과도 제한됨. ○ 의도한 효과를 거양함 ○ 향후 기대효과가 큼 ○ 소다자 협력 활성화 평가함 ○ 인태 지역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대 국민소통 강화

10	한중일 3국 협력의 제도화·내실화 및 서남아·태평양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		C
평가결과	잘된 점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반 인적 교류-교육 청년 문화 등을 지속하려고 한 노력은 성과로 인정해야 함. ○ 지역협력 지속하려는 적극적 노력 ○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 한중일 3국간 협력 계기를 마련하고 태평양도서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지속한 것은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음 ○ 중국과 일본 관계 악화 속에서도 한국이 3국간 협력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역할을 잘했음.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중일 협력 적극 추진 평가	
	개선 할 점	○ 중·일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은 기존의 인적 교류 및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기존의 협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한중일 3국협력 강화 필요 ○ 다양한 회의와 포럼 등을 개최, 운용하였으나 구체 성과는 제한됨. 한 IORA 협력 기금 MOU 체결은 의미 있음. ○ 한중일 3국간 협력이 실질적인 협력 단계로 내실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지적이라기 보다는 내년도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중일 신경전 등 외교적 긴장감에 잘 대응해야 함. ○ 한 태도국 고위급 교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주어진 여건에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됨 ○ 적절함 ○ 매우 우수 ○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계획 단계에서 평가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대체로 기울였다고 판단됨 ○ 적절함 ○ 우수 ○ 소통 환류 잘 이뤄짐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대체로 일정에 따라 정책 추진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매우 우수 ○ 일정에 맞게 충실하게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5/5	○ 대체로 중간 단계 평가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상황적 요인이 있지만, 한중일 민간차원의 교류 강화가 제한됨 ○ 충실함 ○ 중간단계 환류 좋음
	2-3. 변화 대응성	13.67/15	○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는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임 ○ 한중일 정상회의 미개최 상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 중일관계 악화에 따라 한중일 협력 동력 상실에 대한 대응이 제한됨. ○ 비교적 충실함 ○ 우수 ○ 변화 대응성 좋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17/30	○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극적이고 대표성을 갖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적극성, 대표성- 한중일 3국협력에 초점 맞춰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설정할 필요성 ○ 중일 갈등 대응과 한중일 민간교류가 제한되므로 1점 감점함. ○ 예년에 비해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 성과지표도 구체적임 ○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 증대함 ○ 서남아 태도국과의 다자협력 상승
	3-2. 정책 효과성	27.67/30	○ 쉽지 않은 환경임을 감안하면 정성평가 측면에서 효과성을 인정해야 함 ○ 성과(와 노력)가 서남아/태평양 지역에 치중됨 ○ 향후 한중일 회담 개최 불확실성과 부수적 효과에 대한 구체 성과 부재를 반영하여 평가함. ○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의 달성함 ○ 서남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 한중일 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평가 ○ 서남아 태평양 국가와의 외교영역 확대 다변화 평가

11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A+	
평가결과	잘된 점				
	개선 할점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지표별 평가결과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2-1. 정책추진 노력	9.17/10	○ 일정에 충실한 정책 노력을 기울임 ○ 중일 갈등으로 인한 일정 추진에 장애 발생 ○ 일정이 비교적 충실함 ○ 거의 최상 수준 ○ 일정에 맞게 정책을 잘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중간 단계 의견 역시 대체로 잘 반영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임 ○ 필요한 보완조치를 함 ○ 매우 우수 ○ 중간단계 환류 비교적 잘 이뤄짐
	2-3. 변화 대응성	14.17/15	○ 변화에 잘 조응하며 업무를 추진했음 ○ 한중관계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보다 객관적/냉정한 평가 필요 ○ 중일 갈등에 대한 한국의 대중관계 측면에서 대응이 제한됨 ○ 적절히 잘 대응함 ○ 매우 우수 수준 ○ 변화에 대한 대응성 좋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8.67/30	○ 현실적인 목표치를 상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성과 질에서 1점 추가점을 받을 만함 ○ 목표치를 달성함 ○ 성과지표 대표성 충족 ○ 한중 고위급 대화 교류 활성화 평가 ○ 한중 간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화 교류 추진
	3-2. 정책 효과성	28.67/30	○ 정성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인정해야 함 ○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이지 본격적 개선에 못 미침 ○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이라는 부수적 효과가 제한됨. ○ 의도한 효과 거양 ○ 향후 효과도 기대 ○ 국민 체감형 실질 교류협력의 강화 ○ 학계 전문가와의 소통 강화, 언론 국회에 대한 아웃리치 평가

12

한중간 협력 기반 공고화 및 우호정서 증진

A

평가 결과	잘된 점	○ 중단되었던 한중 사이 자치 단체 차원의 교류 협력이 많은 부분 복구되었다는 점이 성과로 보임. ○ 한중 상호인식 개선+악화방지 위한 적극적 노력 ○ 7년만에 한중 지사성장회의 개최와 서해상 불법 구조물에 대한 대응 등이 성과로 판단됨. ○ 한중양국 지방정부 사이의 교류 협력 확대를 적극 지원한 것은 주요 성과로 평가됨 ○ 광복 80주년 계기 중국 내 독립사적지 관리 등이 돋보임. ○ 대중 이해 제고를 위한 우호 정서 증진 활동 평가함																		
	개선 할점	○ 대만 문제로 불거지는 중일 갈등의 불동이 한국으로 튀지 않게 관리해야 할 것임. 대만 표기 문제 등을 원만하게 풀어야 함. ○ 업무의 전체적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공유(+확산) 필요 ○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 대응이 필요함. ○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에 대한 대응이 아직 불완전하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아쉬움 ○ 서해에서 중국 구조물 설치 문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익을 지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서해 구조물 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 <th>평가지표</th> <th>평가결과</th> <th colspan="2">평정근거 및 제언</th> </tr> <tr> <td>1-1. 계획수립의 적절성</td> <td>4.83/5</td> <td colspan="2"> ○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임 ○ 적절함 ○ 매우 우수 ○ 적절함 </td> </tr> <tr> <td>1-2. 계획단계 소통환류</td> <td>4.67/5</td> <td colspan="2"> ○ 평가 의견을 대체로 잘 반영한 계획임 ○ 필요사항을 반영함 ○ 매우 우수 ○ 소통 환류 적절하게 이뤄짐 </td> </tr> <tr> <td>2-1. 정책추진 노력</td> <td>9.17/10</td> <td colspan="2"> ○ 일정에 충실한 정책 노력을 기울임 ○ 2개 사업 미추진 ○ 기 계획 사업 중 2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 ○ 계획된 사항을 비교적 잘 추진함 ○ 매우 우수 ○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추진 </td> </tr> </table>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임 ○ 적절함 ○ 매우 우수 ○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평가 의견을 대체로 잘 반영한 계획임 ○ 필요사항을 반영함 ○ 매우 우수 ○ 소통 환류 적절하게 이뤄짐		2-1. 정책추진 노력	9.17/10	○ 일정에 충실한 정책 노력을 기울임 ○ 2개 사업 미추진 ○ 기 계획 사업 중 2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 ○ 계획된 사항을 비교적 잘 추진함 ○ 매우 우수 ○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추진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임 ○ 적절함 ○ 매우 우수 ○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평가 의견을 대체로 잘 반영한 계획임 ○ 필요사항을 반영함 ○ 매우 우수 ○ 소통 환류 적절하게 이뤄짐																	
2-1. 정책추진 노력	9.17/10	○ 일정에 충실한 정책 노력을 기울임 ○ 2개 사업 미추진 ○ 기 계획 사업 중 2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 ○ 계획된 사항을 비교적 잘 추진함 ○ 매우 우수 ○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중간 단계 의견 역시 대체로 잘 반영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임 ○ 필요 사항을 반영함 ○ 우수 ○ 환류 적절히 이뤄짐
	2-3. 변화 대응성	13.83/15	○ 변화에 잘 조응하며 업무를 추진했음 ○ 서해/해상분쟁 관련 사항에 대한 보다 적극적 아웃리치 필요 ○ 서해 구조물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결과 도출은 제한됨 ○ 변화에 비교적 잘 대응함 ○ 우수 ○ 변화에 대한 대응성 평가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8.67/30	○ 충분히 대표성있는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해 달성했음 ○ 성과의 질적 측면에서 1점 추가점 부여함 ○ 목표치를 거의 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좋음 ○ 대만 문제 등 민감 사안 적절한 관리 ○ 한중 간 인문교류 활성화 평가
	3-2. 정책 효과성	28/30	○ 효과에 대해서도 정성적으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음 ○ 서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과 이에 대한 홍보 통해, 한중 상호인식 악화 추세 제어 필요 ○ 한중 민감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결과 도출이 제한됨 ○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둠 ○ 향후 기대효과가 큼 ○ 지방정부 교류 적극추진 평가함 ○ 주권 역사정체성 관련 현안 적절히 관리

13	중앙아시아 5개국 및 몽골과의 협력 강화		B
평가결과	잘된 점	○ 세계의 유수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에 맞춰서 한국 역시 대 중앙아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성과임. ○ 한-중앙아 소통채널 유지 시도 ○ 중앙아 5개국 특사 파견, 외교부 차관의 방문,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등이 돋보임 ○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공감대 형성은 주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교노력을 잘 기울임. 내년에 열린 한 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준비도 원만하게 잘 함. ○ 중앙아 5개국 및 몽골과의 최고위급 소통 협력 심화 평가	
	개선 할점	○ 중앙아는 지정학적 중요성도 있지만, 역시 최근에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자원외교가 중요해졌음.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한-중앙아 정상회의 미개최 ○ 중앙아와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도출될 필요가 있음. ○ 중앙아시아로의 한국 기업 진출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특별히 없음 ○ 중앙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및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 배가 요구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됨 ○ 적절함 ○ 매우 우수 ○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계획 단계에서 평가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대체로 기울였다고 판단됨 ○ 소통 노력을 함 ○ 소통 환류 잘 이뤄짐 ○ 매우 우수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대체로 일정에 따라 정책 추진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일정이 정상 추진됨 ○ 매우 우수 ○ 일정에 맞게 정책을 적절하게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대체로 중간 단계 평가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보완조치들이 이뤄짐 ○ 매우 우수 ○ 중간 단계 환류 잘 이뤄짐
	2-3. 변화 대응성	13.5/15	○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는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임 ○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조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필요 ○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만, 대응 수준이 통상 업무 영역으로 제한됨. ○ 비교적 변화 대응성이 좋음 ○ 매우 우수 수준 ○ 변화 대응성 적절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5/30	○ 대표성있는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해 달성했음 ○ 업무 초점을 한-중양아 정상회의와 광물자원 확보 등에 집중할 필요 ○ 초과달성으로 부서에서 판단했지만, 질적 수준을 감안하고, 타 부서와의 비교 등으로 달성으로 판단함. ○ 목표치를 비교적 잘 달성함 ○ 성과지표가 구체적임 ○ 중양아 5국, 몽골과의 외교협력 강화 평가 ○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충분히 인정
	3-2. 정책 효과성	27.5/30	○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했으나, 효과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음. ○ 정상회의 연기됨 (반면에 일본은 유사회의 진행함) ○ 질적 수준에서 실제 가시적 성과는 제한됨. ○ 특별한 부수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 의도한 효과를 거둠 ○ 향후 기대효과도 큼 ○ 중양아 5국과의 교류협력의 정책 효과성 평가함 ○ 한 중양아5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추진 기반 마련

14		해양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B+	
평가결과	잘된 점	○ 경제외교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여서 한말 FTA협상타결 및 정상회담을 통하여 방산협력 확대 ○ BIMP-EAGA 협력기금 추진 ○ 인도네시아와의 양자관계 강화 ○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 3개 성과지표 모두 초과달성(136%/155%/132%)으로 정무, 경제, 소지역 협력 전반에서 실적 우수함. ○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 해양 산업 중심의 산업협력 확대 ○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개선 할점	○ BIMP-EAGA 협력기금 추진시 대상지역의 젠더평등 고려 필요 ○ 인도네시아와의 전투기 공동개발사업 미납금 해소 등 실질적 협력 이행 노력 지속 필요 ○ 실적 건수 중심 지표에 질적 수준(지지, 합의문, 정책반영 등)을 반영하여 지표 보강 필요(성과의 질 관리). ○ 한-해양동남아 국가 간 해양산업 및 해양안보 협의체 구성 필요 ○ 해양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양적 지표 개발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추진계획이 목표-전략-세부일정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연중분기별 주요 계기를 빠짐없이 반영. ○ 성과 목표와 관리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 ○ 시행계획 주요 내용이 관리과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계획 단계의 소통-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 전년도 의견(예: 산업협력-안보협력 구체화)을 계획/지표에 직접 반영해 환류가 명확. ○ 2024년 자체평가 결과 적극적 반영 ○ 2024년 자체평가 검토의견을 시행계획에 잘 반영했음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추진계획대로 정상 추진됨 ○ 정상, 장관, 차관 등 고위급 일정 계획 대비 충실히 이행(대외환경 변동에도 추진력 유지) ○ 추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 세부일정을 적기 완료했음
	2-2. 중간단계 환류	5/5	○ 적절하게 이루어짐 ○ 이슈 발생 시 메시지, 접촉을 통해 후속조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중간 점검, 조정이 확인됨. ○ 개선 및 보완사항 반영 우수 ○ 상반기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됨
	2-3. 변화 대응성	14.4/15	○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조사 활동이 다소 미흡함 ○ 대외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함 ○ 돌발 이슈(예: 대외 논란, 정세 변수)에 대해 공관 SNS 메시지, 고위급 접촉 등으로 신속 대응.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대응 우수 ○ 연초 불확실성 증대와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에 비교적 잘 대응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6/30	○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고, 목표를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3개 핵심 지표 모두 130% 이상 초과달성(136%, 155%, 132%)으로 결과가 매우 우수함. ○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달성 노력도 다대 ○ 성과지표 목표치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 있음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를 반영하고 있음
	3-2. 정책 효과성	28.8/30	○ 해양동남아 주요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 '해양동남아 협력 강화의 핵심 목표(고위급 외교 복원, 전략·경제협력 심화)가 정상회담, 방문외교 및 협력 확대 등으로 실질 구현. ○ 협력 사업 승인, 동티모르 협력 및 필리핀 EDCF 관련 조치 등으로 사업, 재원 연계 및 후속 실행력 제고 효과가 확인됨. ○ 재원, 사업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어 중장기 협력 확장 여지가 크나, 지속 성과 지표화는 추가 보완 여지. ○ 해양 협력 성과 기반 마련 ○ 한-말레이시아 FTA 성과 기대 ○ 실제 효과에 대한 국민인식 증대 노력 필요 ○ 목표한 효과가 지속가능해 보임

15	대륙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B
평가결과	잘된 점	○ 한메콩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유스그룹 워크숍 ○ 대륙동남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 신속히 대응 ○ 3개 성과지표 초과달성(162%/188%/130%), 특히 실질협력, 인식제고 지표가 크게 상회. ○ 베트남과의 신뢰관계 강화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 한-메콩 Youth Group 워크숍 등 협력 관련 대 국민 인식 강화 노력	
	개선 할점	○ 이 지역의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및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 코리아 데스크 설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인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처 필요. ○ 유스그룹 워크숍의 규모 확대 필요. 2025년 30명 참가에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확대 ○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계획 수립 ○ 대륙동남아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 강화 필요 ○ 초과달성 지표 중 '협력 도출'의 실질 성과(사업화, 제도화, 후속조치) 추적을 다음 연도 지표에 반영 권고. ○ 동남아 온라인 스캠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예방 노력 필요 ○ 대륙 동남아 지역 내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사전 대비 노력 증대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5	○ KASI 성과에 대한 홍보 확대에서 유스그룹과 비즈니스 포럼에 그친 것이 아쉬움. 전문가 그룹 및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필요 ○ 미얀마 징병제도에 따른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다소 미흡함 ○ 적절함 ○ '대륙 동남아 협력' 범위를 교류, 실질협력, 메콩으로 분절해 계획-지표 연계가 명확. ○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간 체계적 정리 ○ 추진 계획이 과제의 주요내용 포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적절함 ○ 전년도 지적(해양산업 협력, 안보협력 구체화)을 계획 및 성과지표 구성에 반영. ○ 2024년 자체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9.8/10	○ 충실함 ○ 연중 주요 회의, 교류를 계획대로 추진(분기별, 연중 일정 충실 이행). ○ 대부분의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 ○ 과제 세부일정 적기 완료
	2-2. 중간단계 환류	4.8/5	○ 적절하게 이루어짐 ○ 중간 환류는 작동하나(현안 대응, 아웃리치), 체계적 중간평가→지표 / 자원 재배분 서술은 다소 약함. ○ 개선 및 보완 사항 반영 ○ 상반기에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2/15	○ 적절하게 대응함 ○ 남중국해 등 정세 변화에 대해 공관 메시지, 유사 입장국 협의,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등으로 기민 대응. ○ 태국 및 미얀마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응 우수 ○ 대륙동남아 국가들 간의 갈등 상황과 메콩지역 스캠센터 등 이슈에 대한 사전 준비 및 대응 노력 불충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6/30	○ 목표치가 적극적이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대표성이 인정됨 ○ 162%, 188%, 130%으로 초과달성(특히 실질협력, 인식제고 지표 188%는 매우 우수함). ○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달성 ○ 대륙 동남아 국가와 실질협력 강화 목표치 상대적으로 낮음 ○ 성과지표에 대한 과제 내용 대표성이 높지 않음

	3-2. 정책 효과성	28.6/30	○ 대륙동남아 국가와의 우호관계 강화에 기여 ○ 대륙동남아 지역의 초국가범죄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기대 ○ '호혜적 협력' 목표에 부합하는 협력 기반은 강화되었으나, 당초 기대효과를 대표 사례·지표로 더 명확히 제시하면 설득력이 더 커질 여지. ○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대응 등 치안, 안전 협력의 파급효과가 명확하고, 정책 외연 확장(취약계층 보호·범죄 억제)에 기여. ○ 범죄·치안 의제는 지속성과 확장성이 높아 중장기 성과 기대가 큼. ○ 한-메콩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사업 발굴 및 홍보 필요 ○ 동남아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대륙 동남아 지역 내 발생 문제에 대한 대 국민 홍보 신속하지 못함 ○ 대륙 동남아 국가 간의 분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 미흡

16	아세안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		B+
평가결과	잘된 점	○ CSP 청사진의 제시 ○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청사진 제시 ○ 한-아세안 행동계획 2026-30 채택 ○ 정례회의(JCC, ARF, ASEAN+3 등), 정상회의 개최, 대화 신설 등 다자 네트워크 확장 흐름이 분명함. ○ 목표치 55 대비 72(131%) 초과달성. ○ 한-아세안 CSP 내실화를 통한 신남방정책 계승 ○ 아세안 지역협력체와 협력 심화 노력 돋보임	
	개선 할점	○ 2024년의 ABC 비전과 2025년의 CSP 청사진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CSP전략이 좋은데 그 전략이 전략에 그치지 않고 모든 예산과 사업 계획이 이 세 가지 전략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면 좋겠다. 예를 들어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분야의 사업은 인적교류 확대 등등,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분야 사업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운영 등등,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분야의 사업은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사업 등등, ○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성실한 이행 ○ ‘국민 인식 제고’는 시작 단계로, 콘텐츠 및 청년교류 누적 성과를 측정할 보완지표 필요. ○ 신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력사업 발굴 ○ 우리의 대 아세안 정책 인식 제고 및 아세안 전문가 양성 노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전략목표(협력체와의 협력 강화)를 성과 도출 중심 지표로 설계해 방향성이 명확. ○ 주요 성과 목표와 관리과제 간 체계성 확보 ○ 추진계획이 과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5	○ 2024년의 ABC 비전과 2025년의 CSP 청사진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소통·환류 적절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홍보 강화 필요성을 근거로 목표치 상향(전년 대비 15% 상향 등)하여 계획 환류가 합리적. ○ 2024년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 2024년 자체평가 결과와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을 잘 반영함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충실하게 이루어짐 ○ 다자회의 계기 협의, 아웃리치가 계획대로 추진되며 산출물이 결과로 연결. ○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 과제 추진계획 대비 세부일정 준수율 높음
	2-2. 중간단계 환류	4.8/5	○ 적절하게 이루어짐 ○ 중간 점검은 있으나, 중간 환류의 체계(지표 조정, 재설계)가 텍스트에서 다소 덜 두드러짐. ○ 2025 상반기 점검 결과 체계적으로 반영 ○ 상반기 제시된 검토의견 충실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4/15	○ 적절하게 대응함 ○ 남중국해 등 역내 현안에 대해 메시지/협의체 대응을 수행 (대응성 높음). ○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남중국 해상 및 대륙 아세안 지역 내 갈등 및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대응 다소 미흡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2/30	○ 성과지표가 지역협력 성과도출 건수로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의 세분화가 필요함. ○ 성과지표는 단순하였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가 나타나서 성과의 질에서 4점 가점 ○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목표치의 대표성이 인정됨 ○ 지역협력 성과 도출 131% 초과달성(55→72). ○ 적극적인 목표치에 대해 초과 달성 ○ 목표치에 비해 실적치가 상대적으로 낮음 (각각 131%와 132%) ○ 성과지표가 2개인 것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 있음

	3-2 정책 효과성	28.8/30	○ 아세안과의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 ○ JCC, ARF, ASEAN+3 등 정례협의의 정상 운영 및 다자 네트워크 확대로 지역협력체 협력 강화라는 본래 목표를 충실히 달성. ○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신설 등 제3국 연계 외교의 확장이 확인되어, 협력 구도를 다층화하는 부수 효과가 발생. ○ 국민 인식 제고, 청년교류 확대 등은 콘텐츠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경우 중장기 효과가 커질 전망. ○ AKCF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및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 필요 ○ 아세안 중시 기조를 유지 실질적 성과 불충분 ○ 국내 아세안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불확실
--	---------------	---------	--

17	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A
평가결과	잘된 점	○ 브라질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력의 모멘텀 재점화 ○ 브라질과의 10년 만의 정상회담 개최 ○ 볼리비아의 한국 여권 소지자 무비자 입국 시행 ○ 고위급 교류 및 경제외교 여건 조성 189%, 공공외교 183%로 주요 지표 모두 초과달성. ○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이 지역 주요국 정상외교 수행	
	개선할 점	○ 실용·혁신·공영의 한-중남미 파트너십 구축을 좀더 가시적인 단어로 전략 목표를 만들면 좋을 듯 ○ 전략 목표에 따른 사업의 구분이 필요 ○ 남미 주요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노력 지속 ○ 고위급 성과의 '후속 이행(프로젝트 착수, 계약, 제도화)'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성과의 질 제고). ○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남미 지역 전략 구축 필요 ○ 신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사우스 아젠다 개발을 위해 이 지역 주요 국가와 적극적 논의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5	○ 결과 단계와 정책 효과성 등에 포함된 업적 내용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난해 평가 결과의 반영이 다소 미흡함 ○ 적절함 ○ 정상, 장관급 계기와 연중 협의체 추진을 포괄해 계획의 포괄성이 높음. ○ 체계적인 성과 목표와 관리 과제 설정 ○ 과제의 주요 내용들이 추지계획에 잘 반영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적절함 ○ 목표치 산출근거(전년 대비 상황 등) 제시로 환류, 근거기반 계획 수립이 확인됨. ○ 2024년 자체평가 결과 적극 반영 ○ 2024년도 평가 결과와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이 잘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충실함 ○ 방산 협력 성과 등 주요 사업을 실제 행사, 체결로 연결. ○ 계획된 사업을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 추진계획에 맞춰 세부일정 준수율 100%로 높음
	2-2. 중간단계 환류	4.6/5	○ 실용·혁신·공영이라는 전략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구분이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 ○ 적절함 ○ 상황변화 모니터링 및 조치가 있으나, 중간평가 체계 서술은 제한적. ○ 상반기 점검 결과 적극 반영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반영 노력
	2-3. 변화 대응성	14.6/15	○ 적절함 ○ 치안 악화 등 변수에 대해 여행경보 조정, 공지 전파 등 신속 대응. ○ 남미 국가들의 불확실한 정세에 대해 적극 대응 ○ 국내 상황 변화와 이 지역 정세 불안정에 사전 대응 노력/역량 불충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8.6/30	○ 목표치를 크게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고위급 교류·경제여건 조성 189%, 공공외교 183%로 매우 높은 초과달성. ○ 목표치의 상황 조정 필요 ○ 목표달성율이 매우 높음. 목표치가 낮은 것인지 의문 ○ 성과지표 내 하위 지표가 세분화 되어 있음
	3-2. 정책 효과성	28.4/30	○ 남미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 주요국별 핵심협력 분야 설정 및 정상외교, 방산 협력 등 가시 성과가 확인되나, 결과 및 효과를 정책효과성 항목에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기업대상 정보제공 및 제한과 네트워크 형성 등 확장 효과가 언급되나, 부수 효과의 정량·사례 축적은 보완 여지. ○ 핵심협력 분야 맞춤형 협력의 지속 추진 필요성이 명시된 만큼 중장기 전망은 있으나, 연차별 로드맵/지표화 보완이 필요. ○ 한-에콰도르 SECA 정식 서명 성과 달성 ○ 한-남미 상생번영을 위한 교두보 마련 노력 돋보임 ○ 국내 남미 전문가 양성 및 남미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필요

18		중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C+
평가 결과	잘된 점	○ 한-중미 특별라운테이블 및 통상투자포럼 개최 ○ 성과지표 기준 176→219(124%)로 목표 달성. ○ 정상, 장관급 등 대면 교류 및 다자계기 접촉을 폭넓게 확보. ○ 멕시코 및 중미국가들과의 고위급 소통을 통한 실질 협력 강화 ○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을 위해 유사입장국과 미국 등과 대중남미 전략 및 정책 동향 공유		
	개선 할점	○ 성과지표의 세분화 필요 ○ 콜롬비아, 멕시코 등 주요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필요 ○ '실질협력 및 대국민 인식 제고' 지표는 범위가 넓어 성과 핵심(예: 제도화, 사업 반영, 민간확산)을 분리 측정할 필요가 있음. ○ 한-멕시코 FTA 협상 및 MIKTA를 활용한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기반 마련 필요 ○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추가 노력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5	○ 성과지표의 세분화가 반영되지 않음. ○ 적절함 ○ 실질협력, 대국민 인식제고를 단일 지표로 명료화(관리 용이). ○ 체계적인 성과 목표와 관리 과제 설정 ○ 관리과제와 성과목표가 잘 연계되어 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원활함 ○ 부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 서술이 있어 환류 기반이 양호. ○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적극적 반영 ○ 2024년 평가 결과와 자체평가위원들의 검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충실함 ○ 정상, 장관, 실국장, 비대면까지 접촉면을 확장하며 일정 이행 충실. ○ 계획된 사업에 대한 정상적 추진 완수 ○ 관리과제 세부일정에 맞춰 적기에 완료됨

	2-2. 중간단계 환류	4.8/5	○ 적절함 ○ 협의·접촉을 통한 환류는 있으나, '중간 지표 조정'과 같은 구조적 환류 서술은 제한적. ○ 상반기 점검 결과 적극 반영 ○ 자체평가위원들의 검토의견 반영 노력 보임
	2-3. 변화 대응성	14.4/15	○ 적절함 ○ 대외환경 변화에도 다양한 채널(대면/비대면)을 병행해 리스크를 흡수. ○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 노력 다대 ○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 노력이 아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0	○ 목표치의 달성도는 달성, 성과지표의 적극성은 상,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중-->21점 ○ 성과질 가점:5점 ○ 목표치가 높고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124%로 초과달성(다만 130% 이상 구간은 아님). ○ 목표치가 다양한 활동 건수의 총합으로 되어 있어 부분별 평가가 어려움. 2~3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목표치 설정 필요 ○ 성과지표 세분화로 목표치도 새로 제시됨 ○ 고위급 교류 횟수에 비해 아직 성과가 구체화 되지 못함
	3-2. 정책 효과성	28.4/30	○ 중남미 지역협의체를 활용한 외교 지평 확대 ○ 멕시코, 콜롬비아 등 주요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기대 ○ 폭넓은 고위급 교류로 실질협력 기반을 확대했고, 대국민 인식제고도 병행한 점이 강점. ○ 협력 과정에서 파생된 네트워크·후속 사업 가능성은 있으나, 보고서에서 부수 효과를 사례 중심으로 강화할 여지. ○ 중미는 협력의 누적·경로의존성이 커 장기효과 기대는 가능하나, 지속가능성(후속 자원/파트너십) 명시가 추가되면 좋음. ○ 멕시코 및 중미국가들과의 경제외교 활성화 ○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으나 향후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신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G7+ 외교강국 실현 노력이 세련화 될 필요 있음

19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및 중남미 관련 대국민 외교활동 강화		A	
평가결과	발전점	○ 한쿠바 외교관계 기반 구축 및 청년서포터즈 출범 ○ 한-쿠바 상호 상주대사관 개설 완료 ○ 방산, 디지털, 인프라 경제협력사절단 파견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통한 중남미 인식 제고 ○ 실질협력 113%(달성), 기업진출 지원 150%(초과), 대국민 외교활동 138%(초과). ○ 허리케인 등 외생변수에 대해 핵심 인사 아웃리치를 확대하며 행사 성과를 방어. ○ 한-쿠바 외교관계 기반 구축 ○ 카리브 국가들과의 해양 협력 강화 ○ 한-쿠바 상호 상주대사관 개설 완료로 외교관계 기반 구축			
	개선할점	○ 청년서포터즈 및 중남미 파견 인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등 카리브 주요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필요 ○ 실질협력 지표가 포괄적이어서 '핵심 성과(정책 및 문서 반영, 기금사업 성과, 산업협력 등)'를 세분화하는 지표 고도화 권고. ○ 대카리브 지역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기여 ○ 중남미 19개 기구 20명 인턴 파견 성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단기 인턴 프로그램 중심이라 한-중남미 협력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그 기간을 늘릴 필요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정무, 경제, 공공외교를 분리 지표로 설정해 실행-성과 연결성이 높음. ○ 성과 목표와 관리과제 간 연계성 확보 ○ 과제의 주요 내용이 추진계획에 잘 반영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적절함 ○ 지표별 산출 및 측정 구조가 비교적 명확(성과관리 적합). ○ 2024년 자체평가 결과 적극 반영 ○ 2024년 평가 결과와 자체평가위원 검토 의견들이 잘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9.8/10	○ 충실함 ○ 지표별 실적이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용한 것으로 확인. ○ 대부분의 계획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 시행계획 사업 27개 중 26개 정상추진 (96.2%)
	2-2. 중간단계 환류	4.6/5	○ 한카리콤 협력기금 사업 발굴시 국가별 맞춤형 협력 사업 발굴--> 랜섬웨어와 수자원 회복력 강화사업 추진으로 국가별 맞춤형 협력 사업의 발굴은 다소 미흡함 ○ 적절함 ○ 중간 환류는 있으나, 환류의 정형화된 절차 제시는 제한적. ○ 상반기 점검 결과 적극 반영 ○ 자체평가위원 검토 의견 충실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6/15	○ 한쿠바 수교 후속조치가 다소 미흡함. 미행정부의 대쿠바 제재 강화에 대응하는 보다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함 ○ 적절함 ○ 지역 이슈,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범용성이 높은 사업구성 (대응력 양호). ○ 한-쿠바 수교 이후 후속조치 적극 시행 ○ 미 트럼프 정부의 대 쿠바 제재 강화에 대응 및 이 지역 정세 불안에 대한 사전 대응 노력 불충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8/30	○ 목표치의 달성도:달성, 성과지표의 적극성:상, 성과지표의 대표성 :상-->27 ○ 성과의 질 가산점-->2 ○ 목표치가 높고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113%, 150%, 138%로 전반 초과달성(특히 경제협력 지표 150% 우수). ○ 신규 성과지표의 대표성 제고 ○ 3개 성과지표 중 2개 지표만 목표치 초과달성 ○ 성과지표 세분화로 대표성이 향상됨

	3-2. 정책 효과성	29.2/30	○ 한-카리브 호혜적 실질협력 강화 기대 ○ 정무, 경제, 공공외교가 동시에 확대되어 대외관계 기반 강화에 기여. 특히 쿠바 수교 1주년 계기 행사네트워크.제도적 기반 구축 등으로 목표한 관계 강화 효과가 뚜렷. ○ 문화, 학술, 대국민 외교의 확장으로 국내 인식 제고 및 협력 저변 확대의 부수 성과가 발생. ○ 기 구축된 교류 플랫폼이 향후 사업화·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성과 지속을 위한 KPI 고도화 여지. ○ 카리브 국가 및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기반 확대 ○ 한-쿠바 수교 후속조치 체계적으로 달성으로 대 중남미 외교 지평 확장 기초 다짐 ○ 중남미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이 지역과 협력의 지속가능성 향상 필요
--	----------------	---------	--

20		서유럽 국가와의 협력 강화		B+	
평가결과	잘된 점	○ 인적·물적 교류 확대 기반 마련: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해당 지역 채용설명회 등 ○ 서유럽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양자 협의회 개최 ○ 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 의제 발굴 및 구체적 성과 거양 ○ 정상·장관급 전략대화 재가동, 신규 공관(에스토니아) 개설 등 기반 강화 성과가 확인됨. ○ 목표치 적극성, 대표성에 대한 자체 설명이 구체적이며(적극성 상, 대표성 상) 지표 설계의 논리성 양호. ○ 신정부 출범 이후 모든 서유럽 국가와의 고위급 교류 정상화 ○ 서유럽 국가들과 정상외교 다수 개최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에 상주공관 개설			
	개선 할 점	○ 한국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여러 법 통과 및 시행에 따른 한국의 대책 마련 ○ 서유럽 내 한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 제고 ○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참여 방안 적극 모색 필요 ○ ‘지지 확보’의 질적 단계화(공동성명, 서면지지, 정책반영 등) 및 장기적 ‘한국 전문가 양성’ 네트워크 성과를 측정하는 보완지표 필요. ○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공급망, AI 규범 등) ○ 신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G7+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G7 국가들의 평가나 의견 수렴 노력이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5	○ 한-EU 첨단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 대책 마련필요에 대한 적절한 계획 수립이 다소 미흡 ○ 적절함 ○ 첨단산업 협력, 기업지원 등 전년도 의견을 반영해 계획의 정책적 초점이 분명.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간 연계성 확보 ○ 추진계획 내용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적절함 2024년 평가의견을 2025년 추진내용(정책동향 파악, 소통 강화 등)으로 환류. 2024년 자체평가 결과 적극 반영 2024년 평가 결과와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 의견 제대로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충실함 - 전문보고 급증 등(공관 역량 강화 포함) 실행 강도가 높고, 실무 추진력이 확인됨. - 계획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 추진계획 세부일정 준수율 100%
2-2. 중간단계 환류	5/5	- 적절함 - 산업보호 법률 동향 파악 및 고위급 계기 개선 노력 등 피드백 루프가 작동. - 상반기 점검 결과 적극 반영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 검토의견 충실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4/15	- EU 철강분야 관세 인상 및 AI관련법, DSA, DMA 등 디지털 산업 분야의 유럽 연합 법 통과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다소 미흡 - 적절함 - EU 규제, 정책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대응 노력이 확인됨. - 신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교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 - 유럽국가 총선 동향 등 정세 모니터링 강화 및 외교 정책 변화 대응 준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2/30	- 목표치의 달성도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적극성:중(주요이슈 개발 건수 목표치가 작년 95건이었는데 올해는 26건으로 지나치게 하향조정됨.) - 성과의 질 가점 2점 - 목표치가 적극적이고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보고서에 제시된 성과지표 2개 모두 목표치 130% 이상 달성으로 초과달성에 해당함. - 현재 2개의 성과지표를 좀더 세분화할 필요 있음 - 목표치 2023년에 준해 설정한 이유 설명 부족

	3-2. 정책 효과성	29/30	○ 서유럽 주요국과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기대 ○ 전략산업, 공급망, 에너지 등에서 의제 발굴, 논의 및 지지 확보 등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이 높음. ○ 기업 진출여건 개선 요청 등으로 경제, 산업 파급(민관 연계) 효과가 동반. ○ 목표치의 적극적인 상향 조정 필요 ○ 전략산업 협력 아젠다의 축적이 중장기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성과의 계약-사업화 트래킹이 핵심. ○ 서유럽 국가들과의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 ○ 서유럽 한국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간 교류 활성화 노력 필요 ○ 이 지역 공관 확대로 국제무대에서의 외교 영향력 확대 기대
--	----------------	-------	---

21	중유럽 국가와의 협력 강화		A+
평가결과	잘된 점	○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 K-원전 유럽 최초진출의 교두보 마련 ○ 방산 협력의 확대 ○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 지원 ○ K-방산 중유럽 국가 진출 지원 ○ 성과지표 133→190(초과달성),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사회 논의 참여 등 정무 성과 포함. ○ 기업 전 단계 지원 실적(총 108건) 및 공공외교(총 56건) 등으로 성과 포트폴리오가 균형적. ○ 자체평가 의견에 따라 '가중치 삭제' 등 지표 개선 반영 노력 확인. ○ 원전, 방산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실질 성과 도출 ○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 및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과 에너지 관련 협력 MOU	
	개선 할점	○ 중유럽내 한국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청년층에 한국 관심 확대 재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및 재건 지원 노력 지속 ○ 분야별(원전, 방산, 배터리 등) 지원 성과를 '수주, 진행, 완료' 단계별로 분리 제시 권고. ○ 중유럽 국가 내에서의 한국 문화 및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 중유럽 전략 분야 협력 향상에 대한 유럽 주요국, 특히 EU 차원의 견제에 대한 대응 준비 노력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지표를 '지지 확보/후속조치' 등 질적 요소 포함으로 설계해 측정 타당성 높음. ○ 성과목표와 관리 과제 간 연계성 확보 ○ 관리과제 내용이 추진계획에 잘 반영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적절함 ○ 평가위원 의견(형평성, 목표치 설정 방식 등)을 반영해 지표 운영 논의가 정교. ○ 2024년 자체평가 결과 적극 반영 ○ 2024년 평가 결과와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의견 제대로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충실함 ○ 교류, 기업지원, 공공외교가 병렬적으로 실행되는 구조로 일정 이행 충실. ○ 계획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 계획된 사업 100% 정상 추진 혹은 조기 완료
	2-2. 중간단계 환류	4.8/5	○ 적절함 ○ 조정, 탄력 운영(상반기 제약→하반기 조정) 언급은 있으나, 중간환류 프로세스 서술은 제한적. ○ 상반기 점검 결과 적극 반영 ○ 상반기 검토 의견 적극적 반영 노력
	2-3. 변화 대응성	14.8/15	○ 적절함 ○ 국내 제약, 외생변수 하에서도 탄력적 일정조정으로 대응. ○ 원전 및 방산 계약 관련 맞춤형 교섭 추진 ○ 튀르키예 국빈방문 및 한-독 정상회담 성사 노력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6/30	○ 목표치가 매우 적극적이고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133→190(143%), 76→108(142%), 30→56(187%)로 초과달성 (공공외교 지표 탁월). ○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 목표치 설정을 지난 3개년 추세치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은 다소 적극적이지 못함 ○ 공관 대사의 현지 대학 강의를 학술분야 혹은 전문가 지원에 포함하는 것은 재고 필요

	3-2. 정책 효과성	29.4/30	○ 원전, 방산 등 전략적 분야 협력 확대 기대 ○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체결 지원, 폴란드 K2 2차계약 등 대형 가시 성과로 목표 효과가 매우 뚜렷. ○ 비자, 치안, 인프라 등 전 단계 지원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 및 후속 수주/추가 사업 기반 강화의 파급효과가 큼. ○ 신규 원전 추가 건설 협의 등 후속 파이프라인이 존재하여 장기 성과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향후 중유럽에서의 전략적 분야 협력 확대 ○ 의도한 효과와 부수적 효과 중첩 보고 ○ 중유럽 몇몇 국가와 전략적 분야 협력 확대로 향후 높은 효과 기대
--	----------------	---------	---

22	유라시아 국가 (러시아·벨라루스·코카서스3국)에 대한 맞춤형 실용외교 추진	C
----	--	---

평가 결과	잘된 점	○ 러시아 제재 국면 상황 속에서도 민간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음 ○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 우크라이나 전쟁-러북 군사협력 등 제약에도, 두 지표 모두 초과달성(52→75, 12→20). ○ 경제 리스크(제재 및 복귀 요건 모니터링, 기업 요구사항 수렴 및 전달, 전문가 세미나 등) 대응이 구체적. ○ 한-러 간 호혜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러우전쟁과 러북밀착 등으로 어려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 돋보임. 다만, 새로운 한러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임		
	개선 할점	○ 한-러 외교채널의 지속적 관리, 종전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 ○ 대러제재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지속 ○ 제재, 복귀 환경 변화가 큰 만큼 '기업 체감(애로 해소)'을 간접 측정할 수 있는 보완지표 (사례 기반) 도입 권고. ○ 코카서스 3국 및 벨라루스와의 경제협력 기반 조성 ○ MSMT 보고서 내용을 비롯한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및 대 국민 홍보 노력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 하에서도 추세 기반으로 도전적 목표치 설정.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간 연계성 확보 ○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 연계성 높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적절함 ○ 2024년 개선의견(대응전략 마련 ○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 적극 반영 등)을 염두에 둔 추진 설계가 확인됨. ○ 2024년 평가 결과와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의견 반영 잘함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충실함 ○ 경제전문가 세미나, 정책연구용역 등 계획을 실행으로 연결. ○ 계획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 계획된 사업 21개 모두 정상 추진 (100%)
2-2. 중간단계 환류	4.8/5	○ 적절함 ○ 유관부처 협조, 기업 수요 수렴 등 환류는 확인되나 정형화 수준은 제한적. ○ 상반기 점검 결과 적극 반영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의견 반영 노력
2-3. 변화 대응성	14.6/15	○ 적절함 ○ 제재, 전쟁 변수에 대해 동향 공유, 요구사항 수렴. 정부 전달 등 적절 대응. ○ 러-우 전쟁 현황 및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에 적극 대응 ○ 벨라루스와 코카서스 3국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노력 및 러시아의 BRICS 확대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노력 필요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30	○ 목표치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벨라루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의 양자관계 관리 및 실질협력기반 구축 활동 건수의 목표치의 적극성이 다소 떨어짐. 작년 목표치 10건 올해 목표치 설정 12건은 적극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올해는 벨라루스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52→75(144%), 12→20(167%)로 목표치 초과달성. ○ 전년대비 20% 상향 조정은 인정되나, 신규 성과지표의 최초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으로 보임. ○ 활동 건수에 과장급 협의사항도 포함시킨 것은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성과지표 좀더 확장 필요, 대상 국가 혹은 지역으로 구분하기 보다 영역별 구분 필요 (다양한 교류; 경제외교 여건 조성; 국민-공공외교 강화 등) ○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 대상 목표치(12)는 적극성이 다소 떨어짐

	3-2 정책 효과성	28.6/30	○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한러 간 호혜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기대 ○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고위급 교류 확대,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안정적 관리' 목표 달성도가 높음. ○ 연구용역, 실무 채널 강화로 정세분석 역량 및 대응 준비도 제고 효과가 확인. ○ 지정학적 변수로 장기 전망은 제약이 있으나, 긴장 완화 시 대비한 소통 모멘텀 확보로 조건부 기대효과는 유효. ○ 협의 및 정세분석 활동 건수는 많으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 대 러시아 전략적 소통 노력에 비해 성과 미흡 ○ 코카서스 3국과 벨라루스와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 노력 필요
--	---------------	---------	--

23	중동 국가와의 협력 강화		S
평가결과	잘된 점	○ 시리아와의 국교 수교 ○ SHINE 이니셔티브 발표 ○ 대중동구상 발표 ○ 시리아 수교 ○ 12월 추가실적 반영 시 3개 지표 모두 초과 달성(139%, 140%, 150%) ○ 공공외교(박물관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등) 및 재외국민, 기업 안전 점검 활동이 실적과 연결. ○ 신정부 첫 대중동 구상으로 SHINE 이니셔티브 발표 ○ 시리아 수교를 통한 대중동 외교 기반 강화 ○ 대중동구상 'SHINE 이니셔티브' 발표함으로써 핵심 지역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 제시	
	개선 할 점	○ 시리아의 앞으로의 국가발전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관계를 정착할 필요 ○ SHIN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마련 ○ 대중동구상의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무·경제 지표에서 '합의의 질(문서화, 후속이행)'을 다음 연도 성과관리에서 별도 체크 권고. ○ 가자지구 재건사업 참여 및 팔레스타인 ODA 지원 확대 논의 필요 ○ 정세 예측이 어려운 중동지역 특성을 감안, 좀더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위험 요소 예측 능력 강화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정무, 경제, 공공외교를 지표로 분리해 성과관리 체계가 명료. ○ 성과 목표와 관리 과제 간 연계성 확보 ○ 과제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적절함 ○ 다양한 간담회, 포럼, 정책자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구조가 계획에 내재. ○ 2024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극 반영 ○ 2024년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 의견 제대로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충실함 ○ 포럼, 회담, 특사, 간담회 등 계획 사업이 폭넓게 정상 추진. ○ 계획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 계획된 사업 27개 모두 정상추진 (100%)
	2-2. 중간단계 현류	5/5	○ 적절함 ○ 연중 전문가, 기자, 학자 채널을 통한 정책 점검, 보완이 확인됨. ○ 상반기 점검 결과 적극 반영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 검토 의견 충실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5/15	○ 적절함 ○ 가자,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외생변수 하에서 메시지, 다자 대응, 인도적 지원 등 복합 대응 수행. ○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및 이란-이스라엘 전쟁에 적극 대응 ○ 이란-이스라엘 무력충돌 및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등 지역 내 불안정 정세에 대한 대응 노력 돋보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8/30	○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12월 추가실적 반영) 139%, 140%, 150%로 모두 초과달성. ○ 중동 지역 국가와의 정무 및 경제협력 확대 ○ 중동지역 이해 제고를 위한 대국민 공공 외교 활성화 ○ 목표치 적극성 높지 않음 ○ 성과지표 세분화하고 각 지표가 정책목표 반영 우수
	3-2. 정책 효과성	29/30	○ 중동 국가와의 호혜적 협력 강화 기대 ○ 인도적 지원(국제기구 통한 지원) 및 중동 정세 관리, 기업-국민 안전 지원 등 정책효과가 비교적 구체적인. ○ 대국민 강연 등 인식제고 활동은 긍정적이나, 부수 효과(예: 파생 협력, 성과)의 사례화/정량화가 추가되면 좋겠음. ○ 불확실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우리 국익을 위한 대중동 협력 기반 확충 ○ 한-이집트 CEPA 추진 가속화 필요 ○ 국가별 특성 고려한 전략적 외교 실시 노력 성과 ○ 시리아 및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 모니터링 강화 필요

24	걸프 마그레브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		C+
평가결과	잘된 점	○ UAE, 사우디, 카타르와 협력 강화를 통한 제2중동 붐 모멘텀 강화 ○ 걸프-마그레브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 교류협력 및 기업지원 80→151(188.8%), 공공외교 15→26(173.3%)로 초과 달성. ○ 정세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업(관계부처 회의, 기업 간담회 등) 활동이 계획과 정합. ○ 한-UAE 정상 회담 성공적 개최 ○ 이 지역 주요국과 정상외교 활성화 및 경제외교 심화 노력 활발	
	개선할 점	○ 교육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중동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이 다소 부족함 ○ 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의 실질협력 사업 발굴 노력 지속 ○ 기업에 대한 지원 결과(예: 해결, 진전, 계약)를 사례 기반으로 축적, 제시 권고. ○ 한-GCC FTA, 한-UAE CEPA 조속 비준 필요 ○ 이 지역 주요국이 국내 우리 국민과의 교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목표치 산출근거(최근 평균, 전년도 목표 상회 등) 제시로 계획 타당성 양호. ○ 성과 목표와 관리 과제 간 연계성 확보 ○ 과제의 주요 내용이 잘 반영된 추진 계획 수립
	1-2. 계획단계 소통현류	5/5	○ 적절함 ○ 전년도 자체평가 의견(FTA 절차, 공공외교 확대 등)과 연계된 문제의식이 확인됨. ○ 2024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극 반영 ○ 2024년 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검토 의견 반영 노력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충실함 ○ 정세 모니터링-관계부처 협업(국빈방문 준비 등)으로 추진력 우수. ○ 계획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 계획된 25개 사업 정상추진 (100%)

	2-2. 중간단계 환류	4.8/5	○ 적절함 ○ 기업 간담회 등 의견수렴은 활발하나, 환류 결과의 정책, 지표 조정 서술은 제한적. ○ 상반기 점검 결과 적극 반영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의 검토 의견 반영 노력
	2-3. 변화 대응성	14.6/15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정책 제언 수렴을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 ○ 중동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이 다소 부족함 ○ 적절함 ○ 전쟁, 소요 등 연쇄 변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모색으로 변화대응성 높음. ○ 역내 정세변화에 따른 걸프 국가들의 정책변화에 신속 대응 ○ 역내 정세변화 및 미국의 대 중동 전략 변화 분석 및 대응 노력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4/30	○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교류협력 및 진출기업 지원 건수가 작년과 같은 80건으로 작년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한 건수를 감안하더라도 작년과 같은 건수는 다소 적극적이지 않음 ○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80→151(188.8%), 15→26(173.3%)로 강한 초과달성. ○ 목표치의 상향 조정 필요 ○ 목표치의 적극성이 다소 낮음. 지난 3개년 평균치(83.6건)에 못 미침 ○ 현재 2개의 성과지표를 좀더 세분화해 그 목표치도 상응해 조정 필요
	3-2. 정책 효과성	29.2/30	○ 걸프-마그레브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 및 협력 심화 기대 ○ 기업지원, 정세 대응, 공공외교가 함께 강화되어 파급효과가 크나, 성과의 질적 심화(후속사업, 제도화)는 추가 서술 여지. ○ 걸프, 마그레브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 및 협력 심화 ○ 고위급 교류 확대로 지역 내 우리의 역할 확대가 신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G7+ 와 글로벌사우스 전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지역 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건설, 방산 분야 투자 및 교류 활성화 기대 상승

25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강화		B+
평가결과	잘된 점	○ 한-아프리카 고위관리회의의 성공 개최 ○ 한-아프리카 고위 관리회의의 성공적 개최 ○ 한-AfCFTA 협력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제도화 ○ 총괄 기준 115→161(140%) 초과 달성. ○ 12월 추가자료로 성과지표 3개를 분리 제시: 236% / 92% / 140%, 합계 140%. ○ 한-아프리카 고위관리회의의, 고위급 인사 교류 등으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강화 ○ 취임 첫 해 아프리카 국가와 정상 외교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 미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대 아프리카 정책 공조 정례화 노력	
	개선 할 점	○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공공외교 강화 ○ 성과지표의 세분화:현재 하나의 지표를 두 개 혹은 세 개의 지표로 나누어서 관리(예: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사업 발굴 이행 및 홍보를 위한 협의 건수, 정부간 협의회 개최 건수, 경제협력 건수 등) ○ 2026년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의제 발굴 ○ ‘對아프리카 양-다자 협력 확대’ 지표가 92%로 미흡하므로 원인(일정, 여건, 우선 순위) 진단 및 보완전략(대면 교류 복원, 지역기구 연계 등) 필요. ○ 대아프리카 지역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기여 필요 ○ 아프리카1과와 2과가 각각 독립적으로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필요 ○ 국내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박사급) 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 필요 ○ 국가별 맞춤형 양자 외교 성과를 보고서에 적극적 포함할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추가자료 제출 취지 포함) 지표별 관리체계 개선 의지가 확인되며, 목표-실적 구조가 명확해짐. ○ 성과 목표와 관리 과제 간 연계성 확보 ○ 과제의 주요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추진계획 수립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5	○ 적절함 ○ 성과지표별 실적치 분리, 가시성 제고는 환류 조치로 긍정적이나, 전년도 의견 반영의 정책적 조정 서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 2024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극 반영 ○ 2024년 평가 결과와 자체평가위원 검토 의견 체계적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충실함 ○ 협력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협력확대, 경제영토 확장 등 다층 추진. ○ 계획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 계획된 31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100%)
	2-2. 중간단계 환류	4.8/5	○ 적절함 ○ 중간 점검 환류의 정형화/체계화는 추가 보장 여지. ○ 상반기 점검 결과 적극 반영 ○ 자체평가위원 검토 의견 최대한 반영 노력
	2-3. 변화 대응성	14.6/15	○ 적절함 ○ 외부 변수 하에서 지표별로 상이한 성과(236% vs 92%)가 나타난 만큼, 미달 영역 원인 분석 및 대응 강화 필요. ○ 다양한 불확실성 하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 지속 ○ 아프리카 대륙 내 다수 국가에서 정세 불안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 특히 향후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 높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8/30	○ 지표의 대표성에서 현재 하나의 지표를 두 개 혹은 세 개로 나누어서 관리할 필요있음 ○ 성과의 질에서 가점 4점 ○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236%, 92%, 140%로 혼재함. 합계는 140%이나, 지표별 편차 반영. ○ 대 아프리카 양자 및 다자 협력 확대 노력 증대 필요 ○ 성과지표 세분화 시도 했지만, 카테고리 제고 필요. 예를 들어, 정무 교류, 경제외교 교류, 국민-공공 외교 등으로 구분할 것 제안 ○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3-2. 정책 효과성	29.2/30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의 지속·확대 ○ 환경조성 및 경제영토 확장 성과는 크고, 향후 확장 여지도 크나(236%, 140%), '협력 확대' 지표(92%)의 보완이 정책효과 극대화의 관건. ○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고위급 외교 네트워크 강화 ○ 고위급 네트워크 강화 노력에 비해 그 대상국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 한-AfCFTA 협력기금 마련으로 경제 협력 기반 구축 ○ 대 아프리카 외교 전략 심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3국 정책 공조 노력

26

국제 평화안보 증진 등 유엔과의 협력 강화

A+

평가 결과	잘된 점	○ 안보리 이사국 및 의장국 활동을 통한 외교적 성과, 활동 충실 ○ 신흥 안보 의제 발굴, 국민 대상 아웃리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 지난해 제안사항 충실히 반영함 ○ 적극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 및 다양한 다자외교 활성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계획된 주요 일정들을 큰 차질 없이 수행. ○ 안보리 이사국 업무의 안정적 수행. ○ 중견국 네트워크 믹타 활용의 소다자외교 활성화 ○ 국제기구분담금법 이행을 통해 분담금의 외교 전략적 활용을 제시한 점.		
	개선 할점	○ 활동의 질적 영향 분석이 보완될 필요성 있음 ○ 글로벌 사우스 관련 아프리카 이외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감사안 관련, 보편성에 기반한 UN 내 공조체제 확립 강화. ○ 모파랑 등을 통한 홍보활동이 진행되지만 내용의 대국민 확산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외교부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믹타 의장국, 믹타 청년대회 등 정부 활동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었지만 대국민 체감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함. ○ 동남아 온라인 범죄 등 실제 국민들의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하는 적극적 조치를 국제기구에서의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75/5	○ 국제기구 진출 지원 외 실질 성과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적절히 이루어짐 ○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연도 계획이 수립되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적절히 이루어짐 ○ 전년도 평가 결과의 반영을 통해 안보리 의장국 수입 이후 AI를 신규의제로 발굴할 수 있었음.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고위급 일정, 회의 운영 등 주요 추진사항 적기 수행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예정 일정 충실히 수행 - 수립된 계획에 따라 분기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됨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인공지능 외 신규 이슈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환류 발생 및 반영 - 개선보완조치 권고에 따라 중간단계 환류가 진행됨.
	2-3. 변화 대응성	13.25/15	- 신흥의제 대응은 우수하나, 영향력에 대한 질적 증빙(문안 반영 등)은 추가 제시 필요 -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만족도 외에 실제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 - 안정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 - 신정부 출범 이후 부서 간 협업 및 이해관계당사자들 간 의견 수렴의 노력이 충실하게 진행되었음. - 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의 진행됨 (평화유지군 성과평가단 파견 관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8.5/30	- 유엔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존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극적인 목표치의 달성이 확인되었음. - 한국의 참여한 협의 결과물이 채택되는 건수 또한 증가하였고, 한국인의 JPO 등 국제기구 근무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음.
	3-2. 정책 효과성	28/30	-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가 확대되었고, 한국인들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데 본 부서의 역량이 확인됨. - 다자외교 리더십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환경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공고화하는 계획들이 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평가함.

27

국제사회 인권 보호·증진 관련 선도적 역할 강화

A

평가결과	잘된 점	○ “신기술과 인권” 결의 상정, 북한 인권 등 의제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시민사회 및 부처 협업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 ○ 인권기반 접근 관련 글로벌 사우스와 공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주요 업무 예정대로 수행됨. ○ 한국 전문가 유엔 인권기구 진출 지원 ○ 인권 및 민주주의 가치 증진을 위한 UN의 노력에 동참하여 인권이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 ○ 여성, 평화, 안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 다수의 전문가들이 유엔기구에 진출하였고, 이를 지원한 점. ○ 한-AICHR과의 파트너십 확대		
	개선 할 점	○ 결의 채택 이후 국제 규범 변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분석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 ○ 북한 인권, 여성 인권 외의 인권 관련 지평을 확대할 필요 있음. ○ 북한 인권 포함 민감이슈에 대한 보편적 입장을 마련 ○ 유엔 인권 기구 등 관련기구와의 실질적 공조체제 및 피드백 활성화 ○ 캄보디아 사태 등 향후 나타날 수 있는 해외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의 주요 주제들을 지속, 확대하여 거시적 관점에서의 평화 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에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다자외교 리더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수임 이후 진행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학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25/5	○ 사회 관련 민주주의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분야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절히 수립됨. ○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발생 및 반영 ○ 2024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협의회 및 간담회 등 소통과 홍보 방향을 수립함.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충실히 이행됨. ○ 수립된 일정을 충실하게 추진하였다고 판단함.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점검 의견 반영되었으나 결과와 성과의 연결 사례 제시가 다소 부족 ○ 북한인권 관련 결의 등 실질적 결과물 도출에 노력할 필요 있음. ○ 이루어짐 ○ 전년도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일정을 추진함
	2-3. 변화 대응성	13.5/15	○ 동남아 관련 문제의 신속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무난히 대응함 ○ 국제인권 논의는 진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분야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임. 특히 동남아 온라인 스캠 등 국제적 범죄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75/30	○ 국제인권기구 활동이 정량적으로 급증하기는 어려우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목표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함. ○ 2025-2027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수임을 통해 다자외교의 리더십을 강화.
	3-2. 정책 효과성	27.75/30	○ 인권외교의 실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전문가의 유엔 기구 진출)을 통해 한국의 국제인권에 대한 책무성을 제시 ○ 다자외교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8

전략적 원자력외교 추진

B

평가결과	잘된 점	○ 한미 원자력협력 및 SMR 등 미래 의제 대응에 적극적 역할 수행 ○ 한-미 원자력 협력 지평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계획대로 수립됨. ○ 한국이 원자력 선도국으로서 국제 원자력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핵연료 전주기 한미 협력 기반 구축, 제4차 한미 핵, 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 준비를 지속하여 핵안보 협력 모멘텀을 유지 ○ 민간, 학계와의 지속적 연계		
	개선 할점	○ 중장기 전략이 다소 부족 ○ 핵추진 잠수함 관련 대국민 홍보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함. ○ 비확산 관련 쟁점 또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접근 또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신규 의제 심화 대응 ○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원자력 비발전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 비발전 분야에서의 리더십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가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25/5	○ 중장기 로드맵 부족 ○ 비확산 쟁점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적절히 수립됨 ○ 전략 및 성과 목표가 적절하게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06/5	○ 부서 간 역할 경계 및 리스크 환류를 명확히 할 필요 ○ 양자 외의 다자 측면에서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 성과 필요 ○ 발생 및 반영 ○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적극적 반영이 확인됨. 특히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성과의 체계적 축적, 정량 제시 제한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충실히 이행됨 - 계획된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음.
	2-2. 중간단계 환류	4/5	- 점검 반영 일부 확인 - 군비통제 등의 비확산 문제 또한 원자력외교의 중심 쟁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총괄부서로서 실질적 역할 필요) - 이루어짐 - 검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핵안보 유관부서와의 협업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등 실질적 변화를 보여줌.
	2-3. 변화 대응성	13.5/15	- 신규 이슈 대응 노력 우수 - 회의 개최 이후 실질적 성과 제시가 필요함 - 적절히 대응함 - 코로나 상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비대면 협의 활동을 지속했다는 점, 학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유의 장을 마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75/30	- 목표치, 성과지표를 통해 당초 계획한 목표치가 초과달성되었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는 원자력외교과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양자 원자력 협력 관련 협의가 확대되었다는 것 또한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수라고 판단함.
	3-2. 정책 효과성	26.56/30	- 대외 신뢰 확보 전략 보완 필요 - 원전 수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은 무엇보다 원자력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임. - IAEA 모범 협력사례를 통해 원자력 규범과 관련한 리더십 확보

29		사이버·테러 등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C+
평가 결과	잘된 점	○ 사이버, 테러 등 안보 문제 관련 다양한 외교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주요 업무 예정대로 수행됨 ○ NATO 관련 업무 차질 없이 수행 ○ 기존의 양,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기구 및 소다자 논의를 확대하였다는 점(특히 사이버 위협 대응 및 사이버안보 공조 분야)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국제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를 주도하여 이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 리더십을 확인.		
	개선 할점	○ 국내 정책 및 훈련과의 연계가 다소 부족하며, 다자회의 참여 중심의 성과에서 변화 필요 ○ 정보 관련 안보 쟁점을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및 신흥안보 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기여 방안 마련 ○ 국내 전문가들과의 협업 및 환류의 지속 추진 ○ 사이버안보 분야의 규범 창출자뿐만 아니라 규범의 확산자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네트워크의 형성도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	○ 사이버, 테러 외 정보 안보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적절히 수립됨 ○ 사이버협력 네트워크, 신흥안보 위협 대응방안 등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진행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발생 및 반영 ○ 전년도 검토의견이 계획 단계에 적절하게 환류됨. 특히 사이버안보 논의에 있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체계화하고 확대하였음.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충실히 이루어짐 ○ 분기별로 확정된 추진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
	2-2. 중간단계 환류	4.25/5	○ 하이브리드 위협, 인지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발생함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이버안보 관련 다자 논의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함.
	2-3. 변화 대응성	12.875 /15	○ 사건 대응은 있으나 구조적 대응체계(프로토콜, 훈련) 제시 부족 ○ 테러 대응체계를 동남아 문제와 연관할 필요가 있음. ○ 적절히 대응함 ○ 검토의견 중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25/30	○ 대외홍보 및 보도자료의 배포 건수가 확대되었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협업 수가 증가하였음. ○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사이버협력의 활성화에 기여
	3-2. 정책 효과성	26.25/30	○ 참여→국내효과로의 연결(실효성 측면) 증빙 보완 필요 ○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국제리더십을 강화하고, 다자 및 양자협력을 통해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였다고 평가함. 특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요국가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음. ○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규범의 확산자로서 기능.

30		군축·비확산 규범 형성 및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A
평가 결과	잘된 점	○ AI, 우주 등 신형 군축 의제를 선점하고, 청년사절단 운영 등 미래세대 기반을 구축에 일조 ○ AI, 우주 등 군축-비확산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수행됨 ○ AI 국제평화안보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를 통해 AI 시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안보리의 역할 모색 및 관련 규범 논의를 촉진 ○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한국 주도 결의안 2건의 동시 채택으로 본 분야의 다자외교 리더십 확보	
	개선 할점	○ 규범의 문안 반영 또는 국내 정책 연계 등의 구체적 결과 제시가 다소 부족 ○ 사이버 및 신형안보 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기여 방안 마련 ○ 국내 전문가들과의 협업 및 환류 지속적으로 추진 ○ 군축비확산 논의에서 한국 주도의 규범 창출 및 확산을 통해 글로벌 책임국가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등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성 유지 방안도 모색할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관련 분야 규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적절히 수립됨 ○ 계획안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제시되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발생 및 반영 ○ 검토의견이 계획 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음. 미국 이외의 양자 및 다자 군축회의체에 적극 참여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충실히 추진됨 ○ 분기별 정책추진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유엔 청년군축포럼의 적극적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발생함 ○ 국내정책 연계를 위한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2-3. 변화 대응성	13.5/15	○ 우주 안보 분야 군축-비확산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적절히 대응함 ○ AI를 포함한 군사기술 분야의 발전 속도에 대응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규범의 논의를 주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75/30	○ 전년도와 대비하여 목표치의 초과달성뿐만 아니라 다자 및 양자회의 개최 내용 또한 다양해졌음. ○ 군축비확산 분야는 중장기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정성 및 정량 평가를 혼합한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축적함.
	3-2. 정책 효과성	27.75/30	○ 청년의 군축비확산 관심 확산 ○ 한국 정부 주도의 군축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부수적 효과 기대

31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수출통제·제재 외교 추진		A+
	평가결과	평가내용	평가결과
	잘된 점	○ 안보리 전문가패널 공백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MSMT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단순 활동이 아닌 “대체 메커니즘 구축”이라는 제도적 대안 성과 제시) ○ 지난해 지적사항을 가장 명확하게 반영 ○ MSMT 관련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Space, AI 분야의 의제 확산 ○ MSMT를 통해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해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MSMT 보고서의 유엔 안보리 공식문서 등록 ○ 국내 참여자들의 확대를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이해 확대 ○ 수출통제 담론 주도 노력을 통해 국제협력 및 국내 이행역량 강화	
	개선 할 점	○ 러시아, 북한 관련 UN 안보리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어떻게 투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함. ○ 비확산 논의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지지그룹 확보 ○ 수출통제 및 제재 분야에서의 성과목표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어려운 분야이므로 정량 성과목표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지표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제재행위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범을 창출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범의 확산자로서 역할을 모색할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평가함. ○ 적절히 수립됨 ○ 당초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발생 및 반영 ○ 검토의견이 계획 단계부터 반영되었고 이를 통한 성과 구축이 진행되었음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충실히 반영됨 ○ 분기별 시행계획들이 정상 추진되었음
	2-2. 중간단계 환류	4.25/5	○ 규범 형성자로서 실질적 결과물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발생 및 반영 ○ 기존 검토의견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음.
	2-3. 변화 대응성	14/15	○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한 지속적 관심 집중이 필요함. ○ 적절히 대응됨 ○ MSMT 체계화 과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었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책 안정성과 실효성을 추구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9.25/30	○ 기존 성과 및 목표의 초과달성 및 성과지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표의 적실성 확보 ○ 안보리 대북제재 매커니즘의 체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3-2. 정책 효과성	28/30	○ 제재 감시 공백 보완 등 실효성 뚜렷하고 국제공조 및 대외 메시지 강화 긍정적 ○ 대북제재 이행공조 체계의 구축 ○ 관계부처 간 이해도를 높여 정책 실효성을 높임.

32	조약 체결을 통한 국익 제고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		B
	평가결과	평가내용	평가결과
	잘된 점	○ 조약 검토 및 체결을 안정적으로 관리 ○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조약 체결을 통한 국익 제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계획 및 예정된 대로 수행 ○ 형사사법 분야의 사법공조 강화 ○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사 분야 조약의 검토 및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 법령 번역을 통해 주요 다자조약의 재검독	
	개선 할점	○ 조약 체결은 장기간 과정이 필요하며 연도별 정량지표 목표가 언제나 상향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정성평가를 통해 본 부서의 노력이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항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계획은 있으나 일부 리스크 관리 및 대안의 제시가 부족 ○ 쟁점별 전략적 규범 형성 노력이 명확히 제시되었음. ○ 적절히 반영됨 ○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발생 및 반영 ○ 24년 평가 결과 및 검토의견의 반영이 이루어짐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충실히 반영됨 ○ UNCITRAL 제1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일자가 연기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추진한 정책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
	2-2. 중간단계 환류	4.25/5	○ 점검 의견 반영의 구체적 조치 제시가 약함 ○ 실무지침에 대한 지속적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함. ○ 이루어짐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상이 검토의견에 따라 지속적으로 follow-up되고 있음.
	2-3. 변화 대응성	13.75/15	○ 조약 체결 과정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적절히 대응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례화된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25/30	○ 설정된 목표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본 목표치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함. ○ 국제법 분야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부분은 정량지표 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효과성	27.25/30	○ 국민편익 기여는 있으나 효과 측정·사후평가 체계 보완 필요 ○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온라인 범죄 문제 등 국제범죄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33	국제법을 통한 외교정책의 법적 기반 강화로 당당한 외교 실현		B+
평가결과	잘된 점 ○ 국제법 인프라 유지 역할 충실 ○ 국제법적 검토 제공 및 ICAO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부내 직원의 지속적 국제법 역량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예정된 바에 따라 충실히 이행됨 ○ 신규 영역(해양, 우주, 남극, AI 등)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에 적극 참여 ○ 직원 역량 강화 및 학계와의 소통 및 연계 강화		
	개선할 점 ○ 정책 결정이 미친 실질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다소 부족 ○ 특이사항 없음 ○ 국민 대상 국제법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프로그램은 개최 횟수에 집중하고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75/5	○ 국제법 자문 및 기반 강화 방향 적절 ○ 국제규범 정립 관련 구체적 전략이 잘 수립되었음. ○ 적절히 수립됨 ○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발생 및 반영됨 ○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을 최종 계획에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이행되었음. ○ 충실히 이행됨 ○ 분기별 추진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됨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점검 반영 일부 확인 ◦ 대국민 국제법 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확인 ◦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통한 보완의견의 수렴 및 반영
	2-3. 변화 대응성	13/15	◦ 중국 서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적절히 대응함 ◦ 변화하는 국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반영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25/30	◦ 성과지표를 세분화하여 가중치를 두어 지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음 ◦ 국제법 소통 게시판 등 국민과의 소통이 증가
	3-2. 정책 효과성	27.5/30	◦ 부수효과(인프라, 역량 유지)는 있으나 대외 파급 및 체감 증빙 보완 필요 ◦ 국제법 분야의 규범 형성에 참여하고, 국제법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제고 효과를 증진 ◦ 신규 국제법 규범이 확산될 수 있는 영역에서 규범 창출 및 확산효과를 기대

34		독도 영유권과 해양 권익 수호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 강화 및 인식 제고		C+
평가 결과	잘 된 점	◦ 독도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기본적인 대응 충실히 수행 ◦ ITLOS와의 협력 강화 및 동해 표기 관련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연구용역 결과물 국제학술지 발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예정된 계획대로 수행됨 ◦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통한 해양법 네트워크 확대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전문가 네트워크의 확대 ◦ 연구성과물의 학술지 등재를 통해 성과 공유		
	개 선 할 점	◦ 장기적 시나리오 및 리스크 관리가 부족 ◦ AI를 활용한 영토 해양 분쟁 대응의 지속적 강화 ◦ 정책 실효성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정례화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기본 추진계획은 있으나 장기 시나리오·대외환경 대응 설계 부족 ◦ ITLOS와 협력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되었음. ◦ 적절히 수립됨 ◦ 추진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관계기관 협의는 있으나 국제여론·대외 메시지 환류 체계가 약함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발생 및 반영됨 ◦ 2024년 자체평가 의견이 계획 단계에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충실히 이행됨 ◦ 시행계획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됨

	2-2. 중간단계 현류	4.5/5	○ 학계와의 세미나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확인함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학술지 투고 및 학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네트워크 외연 확장
	2-3. 변화 대응성	13/15	○ 일본 측 변화 대응의 전략적 결과 제시가 부족 ○ UNGEGN 대응의 적시성 및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적절히 대응함 ○ 독도 관련 문제 등은 여전히 쟁점 영역이므로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임.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들이 지속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5.5/30	○ 독도 및 동해 표기 관련 지속적 확산 노력의 지표화 ○ 해양규범 관련 해외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
	3-2. 정책 효과성	27/30	○ 국내 기반은 유지되나 국제적 파급·여론 관리 성과 증빙 보완 필요 ○ 해양규범 형성 관련 및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지속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 ○ 분야의 국제 리더십의 확충에 대한 기대

35	국제개발협력 의제 주도를 통한 글로벌 협력과 연대 강화에 기여		C+
평가결과	잘된 점	○ GPEDC 등에서 안정적 역할을 유지하고 국정과제와 기본계획 연계 적절 ○ 개발협력의 분절화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계획된 대로 수행됨.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서로 다른 개발협력 의제를 구분하여 접근하며 특히 인태 지역에서의 개발협력 공조체제 강화	
	개선 할 점	○ 우리만의 차별적 개발 담론, 의제 리더십이 다소 희석되는 느낌 ○ 글로벌 연대 강화 지표의 구체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특이사항 없음 ○ 개발협력 분야의 아젠다 발굴뿐만 아니라 규범의 확산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타 공여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개발협력 모델의 발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25/5	○ 국제 의제 대응 방향은 적절하나 차별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글로벌 연대 강화가 협력에 비해 다소 추상적으로 보임. ○ 적절히 수립됨 ○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	○ 성과 환류의 체계성이 다소 약함 ○ 인태지역 개발협력 공조 체제 관련 독자성이 제시되어야 함. ○ 발생 및 반영됨 ○ 계획 단계에서 24년의 자체평가 의견이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예정대로 추진됨 ○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됨.
	2-2. 중간단계 환류	4.25/5	○ 트럼프 행정부 factor에 다소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확인함 ○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 및 보완점을 점검함
	2-3. 변화 대응성	13.31/15	○ 동남아 issue에 대한 개발 및 연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적절히 대응함 ○ 변화하는 국제사회 환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추진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0	○ 개발협력 논의에 참여, 입장 반영 및 협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제협력 결과를 반영 ○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당사기관 간 협업 확대
	3-2. 정책 효과성	26.69 /30	○ 국제 문서 반영 및 규범 주도에 대한 증빙을 강화할 필요 있음 ○ 개발협력 분야의 파트너십 강의 효과 확인 및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기대

36		선진적·전략적 무상개발협력 추진 및 개발협력 파트너십 확대	C+
평가 결과	잘된 점	○ 전략회의·협의체 운영으로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시민사회·기업과의 폭넓은 협력 추진 우수 ○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현장 소통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계획된 바에 의거 실행됨 ○ 효과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현장 소통 ○ 새 국정과제와 조응하는 국제개발협력 및 통합적, 효과적 ODA 추진	
	개선 할점	○ 실질적인 공동사업 및 조정 사례가 다소 부족 ○ 플랫폼이 우수하나 아직 성과는 축적 중인 단계로 판단 ○ 무상개발협력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민간부문과 협업 시 투명성, 책무성 등에 대한 지속적 교육에 관한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 ○ 특이사항 없음 ○ ODA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해당사자들 의견수렴이 정례화될 필요가 있음. ○ 미국 및 선진 공여국들이 지속적으로 ODA 재원을 축소하는 환경에서 한국이 개발협력 규범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25/5	- 파트너십 관련 투명성, 책무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적절히 수립됨 - 추진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	- 연구용역 결과를 대국민 홍보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발생 및 반영됨 24년 자체평가 의견이 반영되어 있음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충실히 추진됨 - 분기별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됨.
	2-2. 중간단계 환류	4/5	- 민관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확인함 - 검토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음
	2-3. 변화 대응성	13.25/15	- 신흥 공여국과의 파트너십이 다소 부족해 보임. - 적절히 대응함 - 신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와의 조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0	- 무상 분야 주관기관의 역할 강화 및 민간협력에 대한 성과지표의 확대 - 국내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확대
	3-2. 정책 효과성	27/30	- 국제규범에 준하는 전략적 ODA의 추진을 통해 국내외에 한국 ODA에 대한 이해도 증진 - ODA 생태계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37	우리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의 효과적 개발협력 추진		A+
평가결과	잘된 점	- KOICA 책무성 모델 구축, 전수 점검, 부실사업 구조조정 등 ODA 구조 자체에 대한 검토 수행은 매우 우수한 성과이며, 내부 통제 및 책무성 측면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판단됨 - 우리 외교의 전략적 수요와 비교우위에 부합하는 상생의 ODA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개발협력의 브랜드화 - 무상원조 책무성 모델 수립 및 ODA 분절화 해소 노력 - ODA 사업 모니터링	
	개선 할 점	- 우리 외교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한 후, 사업 내용을 서술한다면 더욱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민감사업 분야에서 원칙적 차원에서의 입장을 명확히 함. - 글로벌 사우스 외교전략과 ODA의 조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발굴이 필요 - 맞춤형 ODA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시그니처 ODA 사업모델의 개발 또한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전략적 수요에 따른 계획의 명확한 분류가 필요함. ○ 추진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음
	1-2. 계획단계 소통 환류	4.75/5	○ 점검 의견 반영 확인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평가결과 의견이 계획 단계에서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시행계획상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됨
	2-2. 중간단계 환류	4.5/5	○ ODA 모니터링 경비 지원의 실효성 평가지표가 필요함.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내용이 개선됨
	2-3. 변화 대응성	13.75/15	○ 초국경 범죄 대응과 ODA 결합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해당사자들과의 업무협의 강화 및 변화된 환경에 따라 사업변경 및 관리를 추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75/30	○ 유관기관 및 이행당사자들과의 협업 증가 ○ 현지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확대
	3-2. 정책 효과성	27.5/30	○ 부실 방지 및 신뢰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 ○ 원조소외국에 대한 지원 확대 ○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정책 노력.

38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다자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추진		B
평가결과	잘된 점	○ 플래그십 사업으로 전략적 집중도 향상 우수 ○ UN개발기구 내 우리 국민 진출 및 글로벌 보건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예정된 계획대로 추진함 ○ 인도지원 플래그십 사업 추진 ○ 중점협력기구 집행이사국 참여	
	개선할 점	○ 플래그십 사업 도입 전후 성과 비교 분석이 필요 ○ 글로벌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사업의 이해를 제고한다면,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됨. ○ 특이사항 없음 ○ 다자개발협력 플랫폼 참여뿐만 아니라 다자협력 내 아젠다 발굴 또한 중요한 활동이므로 한국이 다자협력의 주요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속적 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한 후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됨. ○ 계획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적절히 수립됨 ○ 추진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발생 및 반영됨 ○ 24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충실히 추진됨 ○ 시행계획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25/5	○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전략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국제적 관심도가 집중되는 지역 선별을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 확인됨 ○ 검토의견의 반영으로 내용이 개선됨
	2-3. 변화 대응성	13.25/15	○ 시민사회 의견수렴 강화의 구체적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적절히 이루어짐 ○ 현지 수요 반영 및 시민사회 의견수렴 강화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지의 적극성 달성도	26.25/30	○ 새로운 성과지표 및 세부지표를 만들고 효과적인 다자개발협력 파트너십 이행 ○ 정량화된 결과지표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꾀함
	3-2. 정책 효과성	27/30	○ 플래그십 사업의 효과에 대한 증빙 강화 필요 ○ 전략적 다자개발협력 추진으로 한국의 기여효과성을 가시적으로 확인 ○ 원조소외국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포지셔닝

39	국민 공공외교 확대 및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을 통한 K-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	B
평가결과	잘된 점 ○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함. 국민참여형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한 점이 긍정적임. ○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6-2030)의 성과 ○ 범정부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노력 ○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조기 정권교체, 신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새로운(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6~2030)」을 범정부 주도로 성공적으로 수립하여 K-이니셔티브 기반의 중장기 공공외교 전략을 명확히 제시함 ○ 중앙행정기관(19개) 및 지자체(17개)와의 조정·협업체계를 공고히 하여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기반을 확립 ○ 재외공관 중심의 사업 수행체계 정비를 통해 공공외교 활동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 ○ 국정과제를 반영한 공공외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공외교의 틀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됨. ○ 예산 절감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커진 KF를 공공외교 사업에 적극 활용한 것은 매우 고무적임. ○ 신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등 공공외교 청사진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다각도의 노력 지속 ○ KF의 기금축소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교부에 별도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모색된 점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향후 KF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KF-외교부의 선순환 협력 기원 ○ 자체평가위 검토 의견이 최종 계획에 적절히 반영	
	개선 할점 ○ 유관기관(KF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간 중복성을 제거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최근 제기되는 공공문화외교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그림을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는 시점임 ○ 매력(soft power) 발산의 공공문화외교를 위한 노력과 함께 힘담(sharp power) 방어외교의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함 ○ KF 재원 축소 상황에서 KF의 역할 및 구조에 대한 본격적 재검토 및 조정 필요 ○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체계 측면 - 기존 K-컬처 중심 분야에 진화하여, 방산(드론·대드론(C-UAS)) 분야를 K-이니셔티브 전략 분야로 공식 반영하는 검토가 필요함.(국내 유망한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 - 중동, 동유럽, 중남미, 동남아 등은 방산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재외공관 중심의 G2G 협력과 조달·규제·시험평가 지원이 외교성과 확대에 중요	

		- 컬처·뷰티·패션 중심 공공외교만으로는 국가전략산업의 외연 확대에 한계가 있어 '기술·산업·안보 공공외교'의 병행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 ○ 공공외교 정책과 재외국민 보호 정책 간 연계 지표 연계성 보완 - 재외국민 안전·위기관리 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통합형 공공외교 모델 개발 필요. ○ 국민공공외교 우수사례가 실제 공공외교전략에 반영될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제언함. 공모전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 이상으로, 예를 들어 민간공공외교 추진 방안에 실제 적용해 공모전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할 방안이 필요함. ○ 한-쿠바 청년드림 서포터즈 사업을 새로 추진했지만 총괄과의 자체사업 개발 노력이 여전히 미흡함. ○ 트럼프 2기의 유동성 속 대미 공공외교가 다각도에서 집중될 필요. 금년도 한중/한러 공공외교 치중 ○ 외교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프로그램 보강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67/5	○ 적절함 ○ 매우 우수함 ○ 중장기 국가전략(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명확한 목표·추진체계를 설정한 점이 적절함. ○ 통합적 공공외교 체계 수립을 위한 계획으로 적절함. ○ 통합적 공공외교 체계 구축을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 증대, KF-외교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역량 강화 등 목표와 계획 부합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적절함 ○ 매우 우수함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부처·지자체·재외공관 등 다층적 소통이 이루어져 환류 체계가 비교적 충실함. ○ 자체평가 결과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위 검토의견 반영 위한 노력 상당	
	2-1. 정책추진 노력	9.33/10	○ 적절함 ○ 33/34일정 준수. 97% ○ 계획 대비 대부분의 사업과 협업체계 정비가 연중 차질 없이 추진됨. ○ 일정에 따라 충실히 수행함. ○ 기계적 사항 모두 정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17/5	○ 적절함 ○ 우수함 ○ 관계부처·재외공관을 통한 피드백 체계 구축 및 조정 기능 수행이 비교적 적시에 이루어짐. ○ 자체평가 결과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위 검토의견 반영 위한 노력 상당	

	2-3. 변화 대응성	13/15	○ 적절함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매우 우수 ○ 신정부 국정과제와 국제정세 변화(글로벌 이슈 확장)에 따른 전략 유연 조정 능력이 우수함. ○ 각자도생의 글로벌 정세 속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문화의 위상을 적극 활용한 총괄과 만의 상징적 사업이 필요함. ○ 신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등 공공외교 청사진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다각도의 노력 지속 ○ 다만, 트럼프 2기의 유동성 속 대미 공공외교가 다각도에서 집중될 필요. 금년도 한중/한러 공공외교 치중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지표의 적극성·달성도	26/30	○ 적절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에 이의 있습니다. “회의, 협의, 소통실적”이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 성과지표로 재외 명예영사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거나 알리는데 실제 기여한 사례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3-2. 정책 효과성	27.67/30	○ 적절함 ○ 범정부 공공외교 추진체계가 명확해지고, 전략적 방향성이 국내·외적으로 공유되어 공공외교 일관성 제고 효과가 나타남. ○ 주요 외교의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재외국민 중심의 공공외교 기반 확충에 기여. ○ APEC과 연계했다는 총괄과의 사업 내용이 일반적 해외초청 프로그램과 어떻게 차별화 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부수적 효과의 실효성도 다소 불분명함. ○ APEC 계기 공공외교 증진을 위한 노력과 부수적 효과 상당 ○ 다만, 기존 사업(국민참여형 등)의 제도적 정착과 외교부 당국자들에 대한 공공외교 등의 부수적 효과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면 좋겠음	

평가결과	잘된 점	- 유네스코를 포함한 지식공공외교의 여러 분야에 다방면으로 관여해 온 성과가 있음 -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시상식 개최 등의 성과 - 다양한 기록물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성과 - 세계시민교육 선도 - 지식공공외교와 관련하여,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이용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 지식을 확산한 점. 2025년 유네스코 파트너십 강화 및 지식공공외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교육·문화·기록유산 정책 경험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한국의 국제적 기여도를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음. - 특히 미래세대·디지털 교육·AI 윤리·문화다양성·기록유산 보존 분야 등 유네스코 핵심의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지식기반 공공외교'의 정체성이 강화됨.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해외 공관, 국내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 규범 형성과 의제 설정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도를 높이고 정책 영향력을 확대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APCEIU 설립,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됨. - 민감 현안에 대한 당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부처의 역할 지속 - 사도광산 등 세계유산 관련 일본과의 협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을 신설하여 국제사회 내 한국의 기여도를 높임.
	개선할 점	- 유네스코 업무에 초점을 두는 것은 좋지만 과 전체의 정체성을 여기에 집중시키다 보니 원래 담당해야 하는 지식공공외교 관련 업무가 주변화되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 검토가 필요함 -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한 정치적 쟁점 문제를 불식할 원칙과 규칙 제정에 노력할 필요. 예) 사도광산의 경우처럼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기술 필요성 명문화 등 - 한국 바로알리기 콘텐츠의 표준화·다국어 접근성 강화 필요 - 현재 제공되는 자료가 국문·영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맥락에 적합한 맞춤형 번역 콘텐츠가 부족함. - 불어·스페인어·아랍어 등 유네스코 영향력이 큰 언어권 대상 자료 확장이 필요함. - 내국인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유산의 중요성과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가시성이 높지 않은 점에서 지식공공외교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국제사회 차원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공공외교 노력을 가시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 ○ 과거 실적(역사·문화 중심) 위주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다양한 지식공공외교 콘텐츠 발굴이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적절함 ○ 매우 우수 ○ 유네스코 글로벌 의제와 국가전략을 연계한 기본계획 수립은 적절 ○ 세계유산 위원국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을 적절히 수립함. ○ 기계획 목표와 세부사업/프로그램의 체계적 연계성 有 ○ 그러나 여전히 노력 대비 대국민/국제사회 가시성이 높지 않은 부분, 지식공공외교 차원에서의 목표 설정과 계획이 설정될 필요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적절함 ○ 매우 우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국내 학계와의 소통 안정적, 재외공관 및 해외 연구자 네트워크와의 계획 단계 피드백 통합 우수 ○ 검토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2-1. 정책추진 노력	9.33/10	○ 적절함 ○ 90.3% ○ 사업 일정은 충실히 추진되었으며 다양한 콘텐츠 생산·연구교류 사업이 원활히 실행. ○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함. ○ 정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5	○ 적절함 ○ 우수 ○ 사업 중간 점검, 해외 수요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콘텐츠 조정 우수 ○ 일본에 미이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은 중요한 성과이지만, 결과적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중간 단계 검토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음

	2-3. 변화 대응성	13/15	○ 적절함 ○ 우수 ○ 국제규범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 속에서 AI 윤리, 디지털 전환 등 신영역에 대한 대응을 강화 ○ 2026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 가시성 제약이 가장 큰 한계로 보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3.67/30	○ 적절함 ○ 성과지표가 전체적으로 부처의 주요 업무 범위 내로 제한. 아웃리치 차원에서의 적극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정 필요
	3-2. 정책 효과성	27/30	○ 적절함 ○ 한국의 교육·문화·기록유산 분야 국제 기여도 제고라는 당초 목표 달성 ○ 일본에 미이행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제 이행과 관련해 일본의 변화를 유도했는지 불분명함. ○ 세계유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최근 종묘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 국내적으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국민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오류 시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부수적 효과가 불분명함. ○ 당초 계획한 효과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부수적 홍보 효과나 국제사회에서 한국 주도의 선도적 역할을 적시한 향후 기대효과는 다소 미진

41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K-컬처 확산 문화외교 추진

B+

평가 결과	잘된 점	○ K-푸드, K-컬처, K-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임 ○ 특히 재외공관을 활용한 K-컬처 확산과 이를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의 제고 사업은 일정한 궤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주요 박물관 및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한 조치를 매우 높게 평가함 ○ K-culture의 매력을 적극 활용한 점 ○ 2025년 K-컬처 기반 문화외교는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K-팝·드라마·영화뿐만 아니라, 문학·음악·공예·한식·패션 등 다양한 문화영역으로 외연이 확대되었으며, 국가 브랜드 제고와 국민 외교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 ○ K-이니셔티브 실현 기조에 따라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K-컨텐츠를 알리고 확산하는 공공외교 노력이 두드러짐. ○ 재외공관을 활용한 K-컬처 확산 노력이 돋보임. 공공외교 차원에서 재외공관의 역할 정립 및 한국의 문화강국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됨 ○ 정부 교체 시기, 주요국 외교 계기 기념사업을 통한 국가 이미지 증진에 상당한 기여 ○ AI 등 중요한 미래 의제에 대한 적극적 선도를 위한 글로벌 포럼 성과도 돋보임 ○ 이탈리아 콜로세움 등 주요 해외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화성능행도' 제작·발송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함.
	개선 할점	○ 향후 오디오가이드 확대를 기존의 10건에서 획기적으로 그 숫자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예: 100건) ○ 이는 상대국 국민을 향한 공공문화외교의 범위를 넘어서 해외에서 한국민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국격을 올리는 중요한 사업이어서 전향적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할 것을 제언함 ○ 드라마 <프로보노> 5-6편에서 한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내용은 재미있고 유익하여 해외에 알리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기반으로 외국인도 많이 시청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문화컨텐츠를 공공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 K-컬처 중심 소프트파워 전략의 구조적 고도화 필요, 현재 K-컬처 확산 활동은 프로젝트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중장기 전략·정책 기반의 소프트파워 생태계 구축이 필요. - '흥행 중심 콘텐츠 확산'에서 더 나아가 신흥안보·방산 기술외교와 연계되는 복합형 문화외교 프레임 구축 요구 ○ 문화교류협력과가 주도하거나 또는 발굴해내는 K-컨텐츠 사업 추진이 시급함.

		○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직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문화를 발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자문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제언함. ○ 일회성 문화 행사를 넘어, 현지 예술계와의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시 교류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적절함 ○ 매우 우수 ○ 연초 수립된 계획은 문화외교의 기본 목표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균형 있게 설계되어 적절하였음. ○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계획은 잘 수립됨. ○ 다각도의 목표 설정에 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기획/추진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적절함 ○ 매우 우수 ○ 재외공관·유관기관·문화단체와의 계획 단계 협업 원활 진행 ○ 검토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 자체평가위 의견 적극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적절함 ○ 정상 추진 ○ 계획된 모든 사업이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었고, K-컬처 파급력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외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 ○ 일정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이행함.
	2-2. 중간단계 환류	4.83/5	○ 적절함 ○ 적절히 반영 ○ 피드백 수집과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사업별 성과측정 지표의 표준화 부족으로 환류 체계의 고도화 필요 ○ 자체평가위 의견 적극 반영 ○ 검토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4.17/15	- 적절함 - 케데헌 열풍 잘 활용 - 현지 정치·경제·문화 환경 변화에 따라 행사 규모·방식 조정 등 유연한 대응 실행.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한국문화를 알리고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지만, 문제 발생이나 상황변화의 대응으로 보기는 어려움. - 변화하는 트렌드, 유행들을 적시적으로 반영하고 AI 등 주요 미래 의제 선점 노력이 매우 돋보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5.33/30	- 적절함 - 친한 지지기반 강화 지표에서 목표치를 3으로 설정한 것은 만족도 조사의 특징상 과소 설정입니다. -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와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국을 알리는 계획은 충실이 이행했으나, 이는 문화교류협력과의 signature 사업의 결과로만 보기 어려움. - 세계적 인기를 얻는 K-드라마나 음악이 없을 경우 어떤 K-콘텐츠를 어떻게 확산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행방안이 미흡함. - 만족도 조사 외 개최 행사 횟수, 주최/협업 대상의 확대에 대한 지표도 반영될 필요
	3-2. 정책 효과성	28.83/30	- 적절함 - K-컬처 확산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적 연대 강화, 국민외교 기반 확대 등 당초 목표는 전반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2025년 쌍방향 문화 공공외교 및 융복합 문화 공공외교의 내용, 방식, 그리고 그 효과가 이전의 유사한 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어 효과를 냈는지 불분명함.

평가결과	잘된 점	○ 정책공공외교의 범위와 내용을 다양한 글로벌 이슈로 의제 확대한 것은 좋은 성과임 ○ 대상의 다변화도 좋음 ○ 기존 4강 중심의 정책공공외교 대상을 G7,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확장한 점 ○ 기존 주요 협력국 중심의 공공외교에서 벗어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G7-중견국 등 다양한 외교지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됨. ○ 특히 기후변화, 보건·식량안보, 디지털 격차, 인지전·허위정보 대응, 신홍안보(드론·대드론 등)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문제 해결 역량과 규범기여도를 강화함. ○ 정책공공외교의 의제와 대상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짐. ○ 러시아 및 중국과 정책공공외교를 재개한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됨. ○ 차세대를 포함한 정책공공외교 대상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 ○ 아르헨티나에서 '2025 EXPO COREA'를 개최하여 정책·문화·경제를 아우르는 융복합 외교 성과를 거둠. 미국 내 우리 기업 투자 지역을 대상으로 '카라반 사업'을 전개하여 실용적 가치를 확산함.
	개선 할 점	○ 향후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넓어진 범위와 내용의 다양화를 체계적으로 엮어내서 국익에 맞는 정책 지식을 생산 및 전파하려는 노력임 ○ 비서구 진영 국가들에 대한 정책공공외교의 확대 노력이 필요함 ○ 4강 중심의 외교는 <수세적>이나 글로벌 사우스 등에 대한 외교는 <능동적> 외교로 한국 외교 전통 패러다임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더욱 심도 있는 고민과 정책 수립을 권합니다. ○ 각종 개별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디지털·신홍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형 프레임워크 부족. ○ 특히 신홍안보(드론·대드론·사이버·인지전 등)는 국제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공공외교 사업과 체계적으로 연동 다소 미흡 → 향후 K-이니셔티브 안보·기술(Defense-Tech Diplomacy) 강화 필요. ○ 일본, 미국 등과의 정책공공외교에서 파트너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특히 경제가 곧 안보인 국제질서를 생각할 때, 상대국 경제전문가, 기업인들과의 직간접 대화를 위한 자리를 보다 확대해야 함. ○ 트럼프 2기 변화 속 정책공공외교의 의제가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임 ○ 글로벌 사우스 지역 출신 지한 전문가 육성 사업의 범위를 아중동 지역까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적절함 ○ 글로벌 사우스·G7 등 지역 확대 방향은 시의적절하였으며, 글로벌 문제 대응 중심의 전략은 타당함. ○ 정책공공외교의 의제와 대상 다변화를 위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적절함 ○ 부처·재외공관·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소통은 원활했으며, 특정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점도 긍정적임. ○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함. ○ 평가위 의견에 따라 글로벌 사우스, 중러 등에 대한 아웃리치 노력이 확대되었으나 국제정세에 따라 핵심 거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고려할 필요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적절함 ○ 사업 일정 및 예산 집행은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활성화함. ○ 일정에 따라 계획을 충실히 수행함. ○ 정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적절함 ○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선제적 환류체계는 미흡 ○ 검토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 미측 제한파, 트럼프 2기 속 대미 공공외교 분야에 집중도를 높일 필요
	2-3. 변화 대응성	13.5/15	○ 적절함 ○ 글로벌 사우스의 정치·경제적 변화, G7의 규범경쟁 심화 등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으나, 신홍안보 위협(테러·드론·허위정보·사이버) 관련 공공외교 체계 마련은 향후 강화 ○ 한국의 신정부 출범과 국제경제의 불안정성에 적절히 대응함. ○ 조선, 반도체 등 한미 협상 방향에 대한 높은 적응성이 돋보이나 관련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강화할 필요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5.83/30	○ 적절함 ○ 전년 대비 높아진 신규 목표치를 모두 적극적으로 달성함. ○ 다만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관련해 정책공공외교 행사 개최를 정책공공외교의 목표 달성으로 동일시하기는 어려움. ○ 만족도 조사와 지역다변화보다는 한국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거점 지역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한 책정이 필요
	3-2. 정책 효과성	27.5/30	○ 적절함 ○ 정책공공외교의 대상 확대가 곧 해당 지역과의 실질적 협력 확대 및 국익 증진으로 이어졌다는 성과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평가결과	잘된 점	- 외교부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 KOREAZ를 운영하여 총 구독자의 획기적 증대를 보인 것을 높이 평가함 - 공공외교 홍보 서비스의 다양화도 좋음 - 디지털 공공외교의 잠재성을 십분 활용한 점. - 컨텐츠 공모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2025년 디지털공공외교과는 공공외교 전 분야에서 AI·데이터·메타버스·SNS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외교의 확장성과 파급력을 크게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됨. - 다국어·다지역 타깃형 콘텐츠 제작, 실시간 이용데이터 기반 정책 조정, XR·메타버스 기반 행사 등 기존 공공외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접근성·확장성을 디지털 기술로 보완한 성과가 있었음. - KOREAZ의 구독자와 참여수 증가는 주요한 성과임. - KOREAZ의 내용 다변화 노력이 두드러짐. - KOREAZ의 국내외 홍보, 가시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주요 매체 보도) - 자체 콘텐츠 발굴, 다각화, 구독자 확대를 위한 지속 노력도 돋보임 - 가로형 영상에서 쏘뿔, 이미지 중심의 전환 (높은 적응성) - SNS 채널 'KOREAZ' 구독자 120만 명 돌파(57.9% 증가) 및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기록함.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157편을 제작하여 디지털 외교의 혁신성을 선도함.		
	개선 할점	- 양적 증가에 부응하는 질적 변화와 다양화된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포괄적 플랫폼의 구축 등의 과제가 제기됨 - 글로벌 허위정보·인지전 대응체계 강화 필요, 현재의 대응은 캠페인·SNS 중심으로 제한적 운영 - 생성형 AI 기반 허위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AI 위험 감시 시스템, 디지털 외교위기 대응 프로토콜 언론·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포함한 구조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이용자 행동 분석·국가별 반응 패턴·정책 수요 예측 등 '심층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체계'로 발전 필요 - KOREAZ 후속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구독자가 유튜브, 페이스북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디지털매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공공외교 방안이 보강되어야 함. - 구독자의 증가와 걸맞게 지역적으로 구독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구독자의 지역적 편중 해소) - 콘텐츠의 양보다는 질 향상에 노력할 필요 - 단순 조회수 위주의 양적 성장을 넘어, 정성적 품질 분석 데이터의 정책 환류를 고도화해야 함.		
	지표별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평가결과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외교 확산이라는 계획 방향은 적절하였으며 글로벌 트렌드와도 부합함. -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외교 방안이 적절히 수립됨. - 체계적 목표와 계획 수립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33/5	- 적절함 - 관계부처·재외공관·외부 전문가 등과의 협업은 비교적 원활했으나,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을 고려하면 정기적 기술자문 체계 및 민간 협력 플랫폼 보완 필요. -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함.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적절함 - 디지털 콘텐츠 구축, 플랫폼 운영, 메타버스 행사, AI 기반 번역·분석 시스템 활용 등 사업 추진 노력이 충실히 이행됨. - 일정에 따라 계획을 충실히 수행함. - 정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33/5	- 적절함 - 모니터링·데이터 기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 프로젝트별 환류체계의 표준화는 보완 필요. - 검토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4.33/15	- 적절함 - 디지털 위협 대응·기술규범 경쟁 등 신형 외교 과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 역량은 향후 강화 필요. - 변화 대응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제시된 것들이 일반적 디지털 공공외교의 사업으로 보임. - 변화하는 유형, 주요 콘텐츠에 유기적으로 대응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17/30	- 적절함 - 목표 달성률 102.66은 초과 부분이 크지 않아 약간 감점했습니다 - 사업만족도 조사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고무적임 - 사업만족도에 디지털공공외교과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평가와 혼재되어 있어, KOREAZ와 같은 디지털공공외교과의 사업 추진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보장되어야 함.
	3-2. 정책 효과성	27.67/30	- 적절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외교의 접근성, 전달력, 확장성을 강화한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 서포터즈의 선발인원 증가 그리고 제작 콘텐츠 증가라는 부수적 효과가 실제 한국의 홍보에 어떤 기여를 했고 앞으로 할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KOREAZ 채널 외의 영역에서의 추가 부수적/기대효과에 대한 고민 필요

평가결과	잘된 점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을 통한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음 ○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노력이 있음 ○ 시대변화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update하는 점 ○ 2025년 외교역량 강화 교육은 기본 외교실무, 외국어 역량, 직무 전문성 교육 등이 균형 있게 추진되었으며, 현장 중심·수요 기반 교육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AI 활용 보고서 작성, 본부실습 복원, 1대1 리더십 코칭과 같은 후보자 및 외교관 역량 강화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됨. ○ AI 등 첨단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적시적으로 보강되었음 ○ 합동교육을 통한 국가관, 공직소명의식에 대한 교육이 제고되었을 것으로 기대됨 ○ 외교관 후보자 교육과정에 AI 및 데이터 분석 실무를 전격 도입하여 미래형 외교 역량을 강화함.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본부실습 교육을 완전 복원하여 임용 전 현장 적응력을 높인 점이 돋보이며, 입교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함.
	개선 할점	○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외교관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라는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개설 강의의 내용 개선을 위한 좀 더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정규교과목 중 공직소명의식 부분에서 '외교공무원'에 특화된 부분이 있나요? ○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충실히 운영되었으나, 중장기 외교전략과 연동된 체계적 교육 로드맵 부재가 확인됨. - 인지전·허위정보 대응, 국제 대테러, 드론·대드론 등 신형 외교수요를 반영한 '2026~2030 외교역량 강화 로드맵' 마련 필요. - 위기협상·안보·경제·기술 분야의 전문적 구조적 의사소통교육 교육 확대가 필요함. ○ AI를 활용해서 후보자들이 함께 협업을 하는 교육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추가 의견 없으나 타과 대비 보다 압축적, 핵심 내용을 부각하는 형태로 작성될 필요 ○ 급변하는 기술 안보 및 경제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특강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심화 전문 과정을 더욱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적절함 ○ 우수 ○ 연간 교육계획은 기존 역량과 수요를 잘 반영하였으나, 신형안보(국제 대테러, 드론/대드론, 인지전 등 하이브리드 위협) 의제의 반영은 추가적 보완이 필요함. ○ 외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 추진 목표와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33/5	○ 적절함 ○ 우수 ○ 부처·공관·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은 원활했으나, → 교육 수요조사·현장 피드백의 체계화 필요. ○ 검토 의견이 잘 반영되었으나, 국장급 이상으로 격상한 글로벌 리더십 연수과정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불분명함. ○ 평가위 의견에 대한 적시적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9.33/10	○ 적절함 ○ 일정 준수율 98% ○ 기본·심화·전문 과정 등 추진 노력은 충실했으며 교육 이수율·만족도도 높음. ○ 계획된 일정을 충실히 수행함. ○ 정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적절함 ○ 교육 운영 중 피드백 반영이 이루어졌으나, → 데이터 기반 환류 체계(성과지표·학습분석 등) 개선 필요. ○ 검토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 평가위 의견에 대한 적시적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33/15	○ 적절함 ○ 글로벌 외교환경 변화에 따라 콘텐츠를 유연하게 조정하였으나, 신형안보, 디지털·안보·기술 분야 변화에 대한 대응은 향후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신정부 출범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 캄보디아에서의 초국가적 범죄와 국외 변화뿐 아니라 특수한 국내 상황이 발생했을 시 재외 외교관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 시대에 부합한 교육방식과 교수진 역량강화 노력이 돋보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5.83/30	○ 적절함

	3-2. 정책 효과성	27.83/30	○ 적절함 ○ 의도한 효과: 매우 우수, 부수적 효과 및 기대효과 우수 ○ 외교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 강화 및 공관·본부의 업무 역량 제고라는 당초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평가 ○ 2025년 외국어 역량 강화방안이 이전의 외국어교육보다 외교관 후보자의 언어능력을 더욱 강화시켰는지 평가할 객관적 지표가 필요함. ○ 외신기자 대상 강연회가 실제 한국에 우호적인 기사 발신으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인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함.
--	----------------	----------	--

45	외교·안보정책,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연구 및 학술교류		B
평가결과	잘된 점	○ 다양한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를 통해 국정과제 및 정책공공외교에 기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과의 학술교류 강화를 통한 연구역량 확대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한 시의적절한 연구 ○ 학술교류 부문에서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세미나·워크숍·포럼 운영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 피드백 채널 확보라는 이중적 성과를 확보함. ○ 연구 결과가 외교·안보 정책수립 과정에서 적시에 활용되었으며, 일부 연구는 재외공관 업무·국가전략 수립에 직접 반영되는 등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경제 안보 및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 강화 노력이 두드러짐. ○ 트럼프 2기 하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분석 강화 (유의미한 세미나 기획 노력 돋보임) ○ 특히 경제안보 분야, 한미 통상 분야에 대한 적시적 분석과 발간물 성과가 돋보임. 관련 주제에 대한 주도적이고 모범적 역할 ○ 유동성 속 주변 4국 등 선택과 집중의 노력도 바람직 ○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를 중심으로 CSIS 등 해외 유수 싱크탱크와 교류를 강화하고, 타 부처(국방부, 통일부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45건 실시함.	
	개선할 점	○ 발간된 보고서 인쇄물의 대외 발송이라는 점에서 굳이 인쇄본을 발송하지 않고 간단한 링크의 제공을 통해서 학계 대중이 연구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현장 점검회의 때 논의되었듯이 종이 출판은 자료용으로 한정하고 대외배포는 디지털 자료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흥안보 분야 연구의 구조적 강화 필요 - 개별 연구는 충실하였으나, AI 인지전(마이크로 타겟팅 위협)·드론/대드론(무인무기체계 규범)·국제 대테러 위협 및 협력 등 신흥안보 분야의 체계적 연구 센터 구축 및 관심 필요 ○ 2026년부터는 중장기 연구 어젠다(Research Agenda 2026~2030)를 공식 구성하여 전략적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 ○ 재외공관과의 피드백 순환체계 보완: 공관 수요를 반영한 연구도 있으나, 공관별 리스크·지역 특성에 기반한 현장 피드백의 제도적 수집 체계는 비교적 미흡 - 특히 고위험국 공관의 대테러·급변사태 등 위기관리 경험을 연구에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체계 구축 필요.	

		-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 강화가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부설 연구기관과의 협업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함. - 주변 정세 변화에 대해 사후적 분석보다 한국 외교가 선제적으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 연구과제의 발굴이 필요함. - 연구 성과와 학술교류의 양적 증정보다는, 실제 외교정책 수립에 연구 결과가 반영된 사례를 정성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67/5	- 적절함 - 매우 우수 - 국제정세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전반적 계획은 적절하였으나, 신흥안보 의제 확대 측면에서의 사전 전략화는 보완 필요. - 연구역량 강화 방안이 적절히 계획됨. - 적시적 목표와 계획이 이루어짐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적절함 - 매우 우수 - 부처·재외공관·전문가 그룹과의 소통은 원활했으나, 현장성 강화 측면에서 공관 기반 수요조사 체계 고도화 필요. - 회의 개최 외에 다른 연구기관과의 연구협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평가위 의견 적극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적절함 100% 달성 - 연구 과제 추진 및 학술교류 일정은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되었고, 연구의 질도 높은 편임. - 계획된 일정을 충실히 수행함 - 정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적절함 - 우수 - 중간보고·검토·수정 등 환류는 이루어졌으나, 데이터 기반 평가 및 정책 연계 환류 구조 강화 필요. - 검토의견을 대체로 잘 반영함 - 평가위 의견 적극 반영	

	2-3. 변화 대응성	13.5/15	- 적절함 - 매우 우수 - 급변하는 국제정세(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정, 테러 위협 증가 등)에 유연히 대응해 연구 주제를 조정·보완함. - AI·인공지능, 테러리즘 등 급부상 신영역 대응은 향후 추가 강화 필요. 3월 한리대화 개최를 제외하고 신정부 출범이라는 변화에 대응해 러시아와의 소통한 노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미비함. - 트럼프 2기 하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분석 강화 (유의미한 세미나 기획 노력 돋보임) - 특히 경제안보 분야, 한미 통상 분야에 대한 적시적 분석과 발간물 성과가 돋보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33/30	- 적절함 -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북중리 협력강화, 한국의 신정부 출현 등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의 역동성에 비해 과거와 차별 또는 구별되는 성과가 미진함.
	3-2. 정책 효과성	28.17/30	- 적절함 - 외교·안보 정책 기반 강화, 미래 외교의제 대응력 제고 등 당초 목표는 전반적으로 달성됨. - 신흥안보 연구 강화 및 국제규범 경쟁 대응 연구 확대를 통해, → 대한민국 외교전략의 질적 고도화와 정책 선도력 강화가 기대됨. - 연구서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가 실제 어떤 정책결과로 이어졌는지 질적 평가를 위한 지표가 보강되어야 함.

평가 결과	잘된 점	○ 해외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공고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대외적으로 어려운 사건의 발생에 잘 대응하는 성과가 있음 ○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연루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의 노력이 높이 평가함 ○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사전적 국민 보호에 전념하는 점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내외적 역량 강화 노력 ○ 2025년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는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예방-대응-복구 전 단계의 체계화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해외안전여행 국가별 위험도 정보 고도화, 해외안전문자 발송 체계 개선, 긴급연락망 업데이트, 고위험국 중심의 위험평가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화됨. ○ 캄보디아 사건, 미국 조지아 사건 등 대형 위기 발생 시 해외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24시간 대응체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관계기관 간 협업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 신속 대응 역량이 향상됨. ○ 특히 2024~2025년 주요 고위험 지역(중동·아프리카·중남미·동남아)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컨설팅(연 6회) 결과가 현장 중심 정책에 반영되면서, 공관별 대응 역량의 균질화 및 실효성 제고 효과가 나타남. ○ 테러·재난·범죄·사이버 등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최신 위험 패턴에 맞게 보완되었으며, 일부 공관에서 드론·무인기 기반의 새로운 위험요소 분석도 시범적으로 반영됨. ○ 미 조지아주 구금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 대응은 매우 주요한 성과로 평가됨. ○ 해외안전여행 플랫폼의 전면 개편은 재외국민 보호 체계에 실질적 기여로 평가됨, ○ 해외에서 대규모 사건, 사고가 잇따른 한 해 동안 능동적 대응과 개선 노력이 돋보임 ○ 'GIS 기반 해외안전여행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App Award Korea 2025' 대상을 수상하며 디지털 영사 조력의 우수성을 입증함. 해외안전여행 공모전 참여도가 전년 대비 126% 급증하였으며,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사태 시 '범정부 TF'를 즉각 가동하여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실천 대응력이 매우 탁월함. ○ 최근 동남아 지역 취업 사기 등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플랫폼 내 실시간 범죄 유형 알림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 할 점	○ 변화하는 새로운 안보 위협의 현실을 볼 때, 인력 증원 등 인적,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 ○ 우리 국민의 해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플랫폼 마련의 노력이 필요함 ○ 전문가 협의체 운영의 정례화 필요 : 현재 전문가 자문과 민관합동 컨설팅은 효과적이나, 정례 워킹그룹 체계가 제도화 미흡 - 사안별 자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안보 유형별 상설 자문단에 의한

지표별 평가결과		컨설팅 체계 구축 필요. ○ 공관별 리스크 편차에 따른 대응체계 불균형 : 고위험국 공관의 대응 역량은 강화되었으나, 현장 매뉴얼 적용 수준이 상이 - 표준 매뉴얼-현장형 대응 가이드라인-훈련 체계의 일원화 요구 ○ 고위험국 재외공관(현 법령상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보안 역량 능력 강화 필요 - 현재 대부분 고위험 국가(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에서 드론(군사용·상업용)의 잠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대드론 대응 장비(고정형 / 이동형 재밍건) 확보가 미흡. → 군사·테러 기반 무인기 위협이 높은 지역에 우선 배치 필요. ○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의 실효성 강화: 2024년 용역 결과와 위험분석이 반영되었으나, 국가별 위협 특성과 사건 유형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만큼 정기적 개정 체계(2년 1회) 제도화 필요 ○ 위기 대응 훈련방식의 현장성 몰입성 역량 강화 - 다수 재외공관의 위기 대응 훈련이 도상(Table-top) 중심에 머물러 실제 상황 재현성과 대응 역량 제고에 한계 존재. - 생생형 시나리오 기반 종합훈련, 다기관 연계훈련, 드론·폭발물 대응 모듈 등 실전형 훈련 체계로의 전환 필요. - AI·XR 기반 몰입형 대응훈련 시뮬레이터 구축이 시급하며, 공관 간 위기대응 훈련 수준 비교 평가 용이 및 표준화된 위기 대응 역량 확보 기여 - 위협 예측, 자동 평가, 반복 학습 등 기능을 통해 고위험국 공관 중심 실효적 훈련체계 제공 가능(예산 반영 추지) ○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범죄에 대한 적극적 선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관련 부처에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음.								
		<table> <tr> <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 <td>1-1. 계획수립의 적절성</td><td>5/5</td><td> ○ 적절함 ○ 매우 우수 ○ 재외국민 보호 강화라는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위험국 중심의 위험평가·대응체계 개선의 방향성은 적절함. ○ 재외국민 보호 방안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td></tr> <tr> <td>1-2. 계획단계 소통완류</td><td>4.5/5</td><td> ○ 적절함 ○ 매우 우수 ○ 공관·관계부처·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문가 협의체 정례화가 향후 보완 과제로 확인됨. ○ 해외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배포 관련 검토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음. ○ 해외 여행자 수가 늘고, 한국 방문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 및 안전 여행과 관련한 홍보 방안을 계획에 더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음. </td></tr> </table>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매우 우수 ○ 재외국민 보호 강화라는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위험국 중심의 위험평가·대응체계 개선의 방향성은 적절함. ○ 재외국민 보호 방안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완류	4.5/5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매우 우수 ○ 재외국민 보호 강화라는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위험국 중심의 위험평가·대응체계 개선의 방향성은 적절함. ○ 재외국민 보호 방안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완류	4.5/5	○ 적절함 ○ 매우 우수 ○ 공관·관계부처·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문가 협의체 정례화가 향후 보완 과제로 확인됨. ○ 해외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배포 관련 검토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음. ○ 해외 여행자 수가 늘고, 한국 방문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 및 안전 여행과 관련한 홍보 방안을 계획에 더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평가위 의견 반영 ○ 전년도 대국민 인식 개선 의견을 잘 반영함.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적절함 ○ 일정 수행도 92.5% ○ 예방-대응-복구 전 단계에서 정책 이행 노력이 충실하였고, 고위험국 중심의 안전 컨설팅 등 현장 중심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됨. ○ 계획된 일정을 충실히 수행함. ○ 정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적절함 ○ 사건·사고 발생 시점별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지침을 마련하는 등 환류 체계 우수 ○ 검토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 평가위 의견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83/15	○ 적절함 ○ 불안정한 환경 속 빈발하는 사태에 적절히 대응 ○ 중동·아프리카·유럽 등 위험도 변동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글로벌 테러·범죄 패턴 변화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매뉴얼 보완 등 변화 대응 능력은 우수한 편. ○ 다만 신종안보 위협(드론, 사이버, 인지전)은 향후 체계적 대응 필요. ○ 캄보디아에서의 범죄와 조지아주 구금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됨. ○ 해외에서 대규모 사건, 사고가 잇따른 한 해 동안 능동적 대응과 개선 노력이 돋보임 ○ 위기 상황 시 범정부 협업이 돋보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83/30	○ 적절함
3-2. 정책 효과성	29/30	○ 적절함 ○ 재외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해외 사건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충분히 달성됨. ○ 재외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만큼이나 선제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기존 정책이 향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함.

47	영사서비스 개선	B+
평가결과	잘된 점	○ 영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 특히 미국 비자사태에 대응하여 보인 대응 노력을 평가함 ○ 재외국민 보호망 확대 및 홍보 강화 노력이 눈에 띈 ○ 상호주의 고려, 국내 체류 외국인 영사 보호 지원 강화 ○ 2025년 영사서비스는 재외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제도·절차·시스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접근성·신속성·편의성이 전반적으로 향상 ○ 해외 사건·사고 및 긴급상황 대응과 연계한 영사안전 정책이 강화되어, 사전 예방-사후 지원을 포괄하는 영사서비스 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 해외안전여행 정보 제공, 영사콜센터, 온라인 민원 처리 등 비대면·디지털 기반 영사서비스가 확대되어 재외국민 체감 만족도 제고 기여 ○ 美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지위의 연장과 미국 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은 주요 성과로 평가됨 ○ 해외에서 대규모 사건, 사고가 잇따른 한 해 동안 능동적 대응과 개선 노력이 돋보임 ○ 제주대, 숭실대 등 주요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영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외국민보호 세미나를 정례화함.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함.
	개선 할 점	○ 대외 영사 업무 관련 범부처 공조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 영사 업무를 외교안보 업무 전반과 연동하여 풀어가려는 종합적 사고와 추진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며칠 전 주미안마 한국대사관 앞을 지나는데 현지인들이 띄약별에서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걸 본 한국 지인이 차양막과 간이 의자를 설치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공감했습니다. ○ 영사서비스의 지역·공관 간 편차 해소 필요, 공관별 인력·환경·위험 수준 차이로 인해 영사서비스 제공 수준에 편차가 발생 우려 - 핵심 영사서비스에 대한 표준 서비스 기준 설정 및 공관별 이행 관리 강화 통제 ○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개인 맞춤형 안내, 위기 알림 자동화 등 지능형 디지털 영사서비스 발전 필요. ○ 영사 업무가 고도화·다변화됨에 따라 테러·재난·범죄·사이버 등 위기 유형별 대응 역량과 현장 중심 전문교육 확대 필요. ○ 국장급 영사협의회 의제를 보다 확대해 영사 서비스 이상의 실무자 회담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필리핀, 캄보디아와 개최한 국장급 영사협의회가 대국민 영사 서비스 개선 외에 해당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관련자 인도 및 송환과 같은 사안을 포함해 폭넓은 재외국민 관련 문제가 논의되는 자리가 되어야 함. - 관련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재외공관의 행정업무 담당자의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방안(ex. 교육)이 강구 및 강화되어야 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재외국민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중심으로 한 계획 수립은 적절하였으며, 정책 방향성도 명확함. ○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적절함 ○ 공관·관계부서와의 협의는 원활하였으나, 재외국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정례적 피드백 구조는 더욱 강화 필요. ○ 검토 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 평가위 의견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적절함 ○ 정상 추진 ○ 영사서비스 개선 과제가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었고, 민원 처리 효율성도 개선 ○ 일정에 따라 계획을 충실히 수행함. ○ 정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17/5	○ 적절함 ○ 민원·현장 사례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데이터 기반 환류 체계는 추가 보완 필요. ○ 검토 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 평가위 의견 반영
	2-3. 변화 대응성	13.17/15	○ 적절함 ○ 국제정세 변화, 사건·사고 증가, 재외국민 이동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 다만 복합위기·신종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는 향후 고도화 필요 ○ 해외에서 대규모 사건, 사고가 잇따른 한 해 동안 능동적 대응과 개선 노력이 돋보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5/30	○ 적절함
	3-2. 정책 효과성	27.83/30	○ 적절함 ○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당초 목표는 전반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48		여권업무 선진화	A
지표별 평가결과	48 여권업무 선진화	A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17/5	○ 적절함 ○ 관계부처·공관과의 협의는 원활하였으나, 이용자(국민·재외국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환류 구조는 강화 필요 ○ 검토 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 평가위 의견 상당 부분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9.83/10	○ 적절함 ○ 정상 추진 ○ 여권 발급·관리 체계 개선 과제가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었으며, 민원 처리 효율성도 개선됨. ○ 일정에 따라 계획을 충실히 수행함 ○ 정상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적절함 ○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 및 환류 체계는 보완 필요. ○ 검토 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 평가위 의견 상당 부분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33/15	○ 적절함 ○ 여권 수요 증가, 해외 이동 확대, 국제 보안 환경 변화 등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함. ○ 신규 온라인 서비스 확대와 여권 법령 개정은 변화하는 여권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평가됨. ○ 해외에서 대규모 사건, 사고가 잇따른 한 해 동안 능동적 대응과 개선 노력이 돋보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67/30	○ 적절함 ○ 여권 발급 건수는 수요자 중심 지표로 공급자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의문 ○ 성과지표는 여권 업무 개선 목적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목표는 대체로 달성됨. ○ 다양한 대국민 여권 발급 서비스 노력이 두드러짐.
	3-2. 정책 효과성	28.5/30	○ 적절함 ○ 여권 업무의 효율화·보안 강화·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당초 목표는 전반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대리인 수령 시행, 해외 긴급여권 발급절차 간소화, 디지털 여권 확대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것은 의미 있는 부수효과로 평가됨 ○ 여권과의 다양한 여권서비스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

49	G20 등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참여 및 대응 강화		A
평가결과	잘된 점	○ 새 대통령 취임 직후에 진행된 G7 회의 및 미국의 불참 하에 개최된 G20 회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돋보임. ○ (신속하고 적극적인 G7, G20, OECD 등 국제 오피니언 리딩 회의 대응) 신속한 G20 참여를 통한 정상외교 전격 복원, 협력 의제 발굴 및 대한민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한 점 / 특히, 핵심광물 활동 계획, 해양 안보와 에너지 안보 관련 대한민국의 원칙과 비전을 제시한 점은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함. - '28년 G20 의장국 수임 확정은 또 다른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함 ○ '28년 G20 의장국 수임 확정 및 정상 선언문에 우리 입장 반영 등을 통해 다자경제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28 G20 의장국 수임 확정 ○ '26 OECD 부의장국 수임 확정	
	개선 할 점	○ 목표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임. 정책효과성 중 부수적 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를 당초 의도한 효과와 상당히 동어반복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평가한 것이 아쉬움. ○ 다자경제기구과의 열정적인 활동이 국민들에게 소통되는 것은 업무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함. 소통과 관련된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쌍방향'의 의미를 포함한 소통에 대한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물이 보완되면 좋겠음. ○ 미국 G20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의제 및 다자 경제체제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적극 수행 필요 ○ '26 OECD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파급력 있는 행사 (혹은 Initiative) 준비 노력이 드러나지 않음 ○ 실용적 다자외교 노력이 중기적으로 자칫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25/5	○ 주요 다자 간 협의체 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준비한 것으로 보임. ○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국제 오피니언 리딩 회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었음.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적절한 계획 수립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이해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을 나름 충실히 반영하였음을 확인함. ○ DX, AiX,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의견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대부분 의견을 충실히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주최 측 사정으로 연기된 OECD GSG 회의를 제외하고는 시행계획상 계획된 사업을 모두 정상 추진. ○ 중요 정상급 회의에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한 충실한 일정 추진이 되었음.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모든 계획된 일정을 충실히 수행
	2-2. 중간단계 환류	4.75/5	○ 상반기 점검 시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상당수 반영. ○ 유사입장국 양자·소다자 협의 실시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충실하게 반영되었음. ○ 리더십과 실질적인 기여 고려 의견에 대하여, 의장국 수임, AI 프레임워크 등 다차원 노력을 수행함. ○ 중간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모든 의견 적절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75/15	○ 대통령 취임 10여일 만의 G7 정상회의 참석 상황 및 미국의 G20 정상회의 불참 중에도 우리의 '28년 G20 의장국 수임 확정 등 돌발 상황들 속에서도 적절히 대응한 점이 돋보임. ○ 다양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는 정상급 회의에 관계부처 공조, 회원국 협의 등을 통하여 정상 선언문 채택 및 '28년 의장국 수임 등 변화에 차질 없이 대응을 하였음. ○ 상황 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의 G20 보이콧에 적절히 대응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25/30	○ 목표치의 적극성은 중으로 평가했으며, 달성도는 초과 달성으로 판단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상으로 평가함. ○ 첫 번째 성과지표는 '초과달성'하였다고 판단함. 적극성도 타당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두 번째 목표치인 대표성에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함. '상호소통'의 의미가 포함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목표치 달성률 137%로 달성도는 초과달성, 적극성은 중, 대표성은 상으로 평가함. ○ 대국민 소통 및 청년층 참여 유도 노력 우수 ○ 관계부처 협력 노력 우수
	3-2. 정책 효과성	28.25/30	○ G7과 G20의 경우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 부수효과나 향후 기대효과는 당초 의도 효과상의 성과를 반복한 기술로 보이고, 뚜렷한 객관적 성과가 미흡함.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다양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확보에 큰 성과 ○ OECD 가입 30주년을 적극 활용하는 준비 노력 필요

평가결과	잘된 점	○ 룬스타와 엘리엇 사건 등에서 국익 수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가시적 성과를 냈으며, 국제적 규범 형성 과정 논의 참여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해당 규범의 집행 과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낸 것도 잘한 점으로 꼽고 있음. ○ 투자보장, 사회보장, 항공, 이중과세, 세관 상호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한 점 ○ 중장기 전략 및 경제 협정체결 종합 매뉴얼을 바탕으로 중점 협상 추진국 설정 및 업무를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실현한 점 ○ 학계 및 법률 분야별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한 점 -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 협력 시스템을 모색한 점 ○ 범부처 차원의 우리 정부 대상 ISDS 소송 대응에 적극 참여하여, 룬스타 취소 소송 정부 승소한 점. ○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다수의 경제협정이 체결 및 타결되었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우리의 입장 반영 ○ ISDS 개혁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력, 지속적 양/다자 노력을 통한 룬스타, 엘리엇 승소 성과 ○ ‘중장기 전략 로드맵’ 수립을 통한 체계적/전략적 대응 ○ 공격적인 성과지표 설정	
	개선 할점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보다 더 잘 드러나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향후 기대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체감될 수 있게 기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내부 부처 간 융합 형태의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한 고려가 진행되면 더욱 높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함. ○ 새로운 시장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신흥국들과 탄력적이고 유연한 경제협정을 지속 추진 ○ 기술패권 시대 연구 및 기술 안보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 분야 국제규범 대응 및 선도 노력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25/5	○ 각 경제협정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인상적임. ○ 연계성과 구체성 모두 우수함.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계획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자체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성과관리계획 수립시에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충실하게 반영되었음 ○ 자체평가의견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대부분 의견 충실히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세부 일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임. ○ 차질 없는 일정 관리를 진행하였음.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모든 일정 우수하게 수행
2-2. 중간단계 환류	5/5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 점검 결과 검토의견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함. ○ 검토의견에 충실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중간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대부분 의견 충실히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3.5/15	○ 인도 사례는 적극적 대응을 잘 반영하였으나 해당 사례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사례는 없었는지 아쉬움. ○ 인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경제 물류 네트워크 공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 수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대한민국에 필요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함. ○ 상황 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음. ○ 재외공관, 유관부처 및 기업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위기 대처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8.5/30	○ 목표치의 적극성은 상으로, 달성도는 초과 달성으로 평가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상으로 평가함. ○ 목표치 달성률 116%로 달성도는 달성, 적극성은 상, 대표성은 상으로 평가함. ○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우수 ○ 한-이라크 협정 타결 축하
3-2. 정책 효과성	26.75/30	○ 룬스타 사건의 최종 승소 과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함. ○ 국정과제와의 연계가 부족해 보이고, 향후 기대효과는 추상적임. ○ '25년도 경제협정규범과의 업무에 대한 노력은 인정함. 최근 국제정세가 '외교-경제-기술-안보의 융합된 형태'로 진행된다고 생각함. 이런 상황에서 경제협정규범과의 업무가 외교부 부처 간 융합 형태로 추진된다면, 더 높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수적 효과에 8점을 부여함.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ISDS 관련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우수 ○ 과학기술분야 협력/협정에 관심 요망

평가결과	잘된 점	- 성공적인 APEC 회의 개최에 주무 부서로서 크게 기여하였음을 높이 평가함 - APEC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합의문 도출 - APEC 의장국 성공적 수임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점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APEC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수행 -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을 신규 지표로 채택하고 노력 강화		
	개선할 점	- 특별히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향후 실천계획 수립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특별한 개선·보완 필요사항 없음. (APEC에 집중하느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 기타 지역경제협력 플랫폼에의 참여, 활용 및 선도 노력 지속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75/5	- 전략·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있으며, 관리과제 추진 계획이 구체적임. - 적절함.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및 수행 계획은 매우 우수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25/5	- 러북 군사협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내용 반영이 미흡해 보임. - 충실하게 반영되었음. - 자체평가의견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대부분 의견 충실히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시행계획상 계획된 사업들을 모두 정상 추진함. - 매우 노력함.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계획한 모든 일정을 충실히 수행	
	2-2. 중간단계 환류	4.75/5	- 상반기 점검 시 제시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충분히 반영하였음. - 중간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대부분 의견을 충실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5/15	- APEC 회의 준비 중에 일어난 상황들에 잘 대비한 것으로 판단함. - 효과적으로 대응함 - 상황 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음. - 높은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APEC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8.5/30	-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해 초과 달성했다고 판단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잘 구현되었다고 판단함. - 목표치 달성을 137%로 달성도는 초과달성, 적극성은 상, 대표성은 상으로 평가함. - APEC의 성공적 개최 - 재외공관을 활용한 지재권 보호 활동 노력 우수
3-2. 정책 효과성	28.25/30	- 성공적 APEC 개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함. - 한미 관세협상 등이 이를 계기로 타결되어 부수 효과도 기대 이상 -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함.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APEC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보호주의 기조를 어느 정도 완화 - 기타 지역경제협력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지재권 보호뿐만 아니라 ‘연구안보’에 대한 외교부의 노력 필요

평가결과	잘된 점	○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한 점이 돋보임. ○ 한화오션 미 자회사 제재 연기는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함. ○ 한중 교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한 점 ○ 민생기여 외교 강화 노력 우수 ○ 동아시아지역 공급망 확대 노력 우수		
	개선 할점	○ 세부 일정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쉬움. ○ WTO 체제의 영향 감소로 대륙별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음. 동아시아 경제권 블록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22년 신규 성과지표인 동아시아지역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협력 확대의 범위를 경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중국과 일본의 중요성은 매우 높음, 그러나 1년간의 활동에서 대만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세계 경제 분야에서 대만의 위치를 고려한, 좀 더 비중 있는 대응과 계획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이를 위하여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통한 방안 수립을 고민한 점은 우수한 점임. 그러나, 대일 관계는 역사, 경제, 사회 등 다른 국가에 비하여 더욱 복잡미묘한 관계라고 생각함. 일본과의 협력은 현 국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외교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함. 일본 MZ 세대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음. 이런 상황을 통찰적으로 고려한 대일 외교 업무의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RCEP을 고도화하며,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등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대응은 미흡 ○ 대중 협력 확대가 유일한 목표가 될 수 없음: 상대가 공격적일 때 단호한 입장 표명 및 상응하는 대응도 필요 (이에 따른 목표 미달성은 용인될 수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계획 수립이 측정 기준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중국 리스크를 감안한 방향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필요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25/5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임. ○ 자체평가의견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대체로 충실히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7.75/10	○ 시행계획상 계획된 사업 23개 중 20개가 정상 추진되어 세부 일정 준수율이 87%에 그쳐 그에 따라 평가하였음. ○ 계획된 사업 준수율이 87%를 기록 ○ 계획된 일정 모두 충실히 수행
	2-2. 중간단계 환류	4.75/5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 점검 결과를 반영하려 노력한 점들은 돋보임. ○ 중간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모두 충실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3.5/15	○ 미-중 갈등으로 인한 상황 변화 속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평가함. ○ '22년 신규 지표인 동아시아지역 우리 기업 지원에 대한 목표치를 3년간 설정하지 못한 점은 대응성 측면에서 목표치의 적극성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함. ○ 상황 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음. ○ 서해 구조물에 단호한 대응 필요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4/30	○ 동아시아지역 우리 기업 지원을 목표치에 최초 반영하는 적극성은 바람직해 보임. ○ 설정된 성과지표 또한 해당 관리과제 추진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기업 지원 신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여 적극성을 '중'으로 평가함. ○ 목표치 달성률은 3개 지표 단순평균 시 131%이나 3개 중 2개는 달성도가 100%에 근접하여 달성도는 달성, 적극성은 판단 근거 부족으로 중, 대표성은 평가지표 개수가 3개로 중으로 평가함. ○ 협력 구절보다는 단호한 입장 표명 및 상응하는 대응도 큰 성과가 될 수 있음 ○ 민생기여 외교 노력 우수

	3-2. 정책 효과성	27.5/30	○ 실행한 정책이 동아시아지역 우리 기업을 위해 나름 실효성 있게 작동 중인 것으로 보임. ○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는 부수적으로 대중 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부득이해 보임. ○ 당초 의도한 효과에서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지만, 세계 경제 블록화 진행에 따른 중국, 일본 이외 국가에 대한 효과가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함. ○ 부수적 효과에서 동아시아 관점에서의 효과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함. ○ 지역별 기대효과가 기술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대중 & 대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 전략 및 목표 설정 필요 ○ 기타 (동아시아)국과의 관계 확대를 통한 다변화 전략 필요
--	----------------	---------	---

53

북미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수입규제 대응

A+

평가결과	잘된 점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기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함. ○ 비자 문제 관련하여 사전 대응에서 선제 대응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나, 신속한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 점 ○ 미국과 관련하여 발생한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점. 특히 기업과 함께 협력적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한 점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함. 마스가 대응은 민관 협력 대응의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함. ○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지원 ○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미 관세협상 원만히 타결 ○ 조지아주 구금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기업 비자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에 기여		
	개선 할점	○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움. ○ 캐나다는 대한민국의 자원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후보라고 생각함. 캐나다에 대한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 대한민국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기술별 검토가 시작되면 바람직함. ○ 제조업 분야와 더불어 금융 분야 협력을 지속 추진하여 외환시장 구조 개편 등을 지원할 필요 ○ 기술패권 시대 대미 통상 협력 확대에 더하여 우리의 기술 및 고급인력 유출이 없도록 연구 및 기술안보에도 외교적 관심을 가져야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75/5	○ 특히 추진 계획이 과제의 주요 내용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대미 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계획 수립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성과 관리계획 수립 시에 자체평가위원 등의 의견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자체평가의견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대부분 충실히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시행계획상 계획된 사업들을 모두 정상 추진한 것으로 확인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수행	

	2-2. 중간단계 한류	4.5/5	○ 자체평가 결과 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함.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구글 지도의 낮은 활용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외국인들의 국내 장소 접근성 낮아짐 등) 등을 고려한다면 '보호'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중간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대부분 충실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25/15	○ 조지아주 구금 사건의 사후 대응은 높게 평가하나 사건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 ○ '기술 = 경제 = 안보'가 동일한 존재감의 시대에, 안보광물 분야에 대한 적극적 업무를 수행함. 단, 첨단기술 분야 최선단 국가인 미국과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음 ○ 상황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음. ○ 조지아주 구금사태 및 관세협상에 기민하게 대응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75/30	○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고,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우리 국민들이 유일한 군사동맹국인 미국 정부에 의하여 구금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성과지표가 이러한 돌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게 선정되었는지는 의문임. ○ 목표치 달성률 141%로 달성도는 초과달성, 적극성은 상, 대표성은 상으로 평가함. ○ 대부분 초과달성 하였으나 관세협상 및 구금사태 등 긴급 현안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목표에는 미흡 ○ 그러나 대표성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
	3-2. 정책 효과성	27/30	○ 미국 우선주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관세 조치 및 경제정책 변화에 나름 열심히 대응한 것은 평가함. ○ 하지만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움. ○ 부수적 효과에서 관세와 관련된 효과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음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구금이라는 긴급 사태 및 높은 불확실성을 가진 통상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함 ○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보다 장기적/전략적 대미 경제외교 전략 필요

54

유럽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지원 경제외교 강화

A

평가결과	잘된 점	○ 외교적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에 기여한 점이 특히 돋보임. ○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유럽지역에 대한 적극적 진출 과정에서 역할은 잘된 성과라고 생각함. ○ 국가별 ‘핀포인트 교섭 강화’는 업무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 부처 협업을 위하여 분야별 부처와의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 업무 수행은 매우 잘된 점임. 산업부, 국방부, 과기부와의 업무 협업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면 좋겠음. ○ 외교적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 수출 및 수주 실적 개선에 기여 ○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 활동이 체계화되어가고 있음 ○ ‘수출·수주 외교지원단’ 출범	
	개선 할점	○ 특별히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호라이즌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국내 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호라이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반면, 호라이즌 프로그램 포함한 유럽 대륙에 대한 관련 분야 정보는 미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 ○ 해외 건설 프로젝트 및 방산 수출의 후속 사업이 해당 국가에서 지속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 ○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협력 및 연구/기술안보 관점의 외교적 노력 증대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75/5	○ 전략·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 연계성·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경제협력에 초점을 두고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계획
	1-2. 계획단계 소통한류	4.5/5	○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을 최종 계획에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경제, 안보 분야가 매우 중요한 영역임. 그러나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서는 호라이즌 프로그램에 매우 관심도가 높음. 이에 대한 적극적 반영 정도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함. ○ 자체평가의견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대부분 의견을 충실히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관리과제 추진계획 대비 세부일정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모든 계획을 충실히 수행
	2-2. 중간단계 환류	5/5	○ 자체평가위원 점검 결과 검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보여짐. ○ 중간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대부분 적절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15	○ 상황 변화에 나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현장 의견도 상당수 수렴했다고 보여짐. ○ 상황 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25/30	○ 방산물자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 ○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해 이를 달성했음을 확인함. ○ 성과지표에 기업지원 활동 실적을 반영한 것은 바람직해 보임. ○ 목표치 달성률 110%로 달성도는 달성, 적극성은 최근 3년 추세 수준으로 설정되어 중, 대표성은 상으로 평가함. ○ 적절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충실히 목표 달성 ○ 보호주의 시대 수출 및 방산 지원의 초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국가들과의 상호보완적 협력 확대 노력 필요
	3-2. 정책 효과성	28/30	○ 당초 의도한 효과 및 긍정적 부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향후 기대효과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핀포인트 교섭 방식은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측면에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함. ○ 호라이즌 사업에 대한 국내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조금 부족함.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방산 협력에 우수한 성과 ○ 민관합동 협의를 통한 수요 기반 외교 수행

55		경제안보외교 역량 강화		C+
55	평가결과	잘된 점	○ 탄자니아 마헹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현지 착공식을 개최할 수 있게 한 점이 돋보임. ○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점 ○ 재외공관 EWS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을 확대 개편한 점 ○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 해소 지원 ○ 경제안보연구네트워크 구성 운영 ○ MSP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확보	
		개선할점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서 자체평가에서도 '하'로 나온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 단어는 '첨단기술'이라고 생각함. 핵심 광물 관련, 조기 경보 시스템 관련 업무에 첨단기술 분야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함.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고려 사항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 과학기술규범과 및 인공지능외교과와 업무의 중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는 동일한 선상에서 대응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두 과와의 협업을 통한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반영된 업무 계획이 수립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 핵심광물과 더불어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과 협력 의제를 도출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경제안보외교의 포트폴리오를 확대(다변화)하고 이를 종합적/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노력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추진 계획이 과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경제안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종합적인 전략 마련 필요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성과관리 시행계획(안)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을 최종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의 질 중심의 운영은 바람직함. ○ 자체평가의견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대체로 충실히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시행계획상 계획된 사업 30개 중 27개 정상 추진(90%) ○ 계획된 사업 준수율이 90%를 기록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불이행 및 연기를 제외하고 충실히 수행
	2-2. 중간단계 환류	4.75/5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 점검 결과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중간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대체로 충실히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4.75/15	○ 공급망 위기 대응 도상 훈련을 실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함. ○ 상황 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음. ○ EWS 구축 및 활용은 변화 대응성을 크게 향상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1/30	○ 목표치는 적극적으로 설정해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해 보임. ○ 신설과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함. 그러나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국제정세에서, '영차영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안보는 해당 과만의 업무 영역보다는 지역, 분야의 아우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표 개발과 업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목표치 달성을 131%로 달성도는 초과달성, 적극성은 상, 대표성은 중으로 평가함. ○ 신생 부서로서 경제안보외교 기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지표 ○ 공급망 모니터링은 기반 활동
	3-2. 정책 효과성	28.5/30	○ 국제협력 및 민관협력 모두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여짐. ○ MSP 및 EWS 모니터링 공히 향후 기대효과가 지속 가능해 보임.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MSP 의장국 수임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리더십 발휘 ○ 경제안보외교 연구 네트워크 구성 및 내실 있는 운영은 향후 경제안보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임

56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외교 강화 및 동북아 환경협력 제고		B+
평가결과	잘된 점	○ 다양한 국제적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임. ○ 2035 NDC 발표, 탈석탄동맹 가입 등 COP30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없는 외교적 대응은 매우 잘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산업에서 철강산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후클럽 핵심과제로 추진된 논의에서 저탄소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점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로벌 기후대응 협력 주도 업무를 정상급, 다자, 소다자, 양자,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참여 독려, UNFCCC 관련 기구 진출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서가 작성된 점은, 기후변화 대응 업무가 국가 간 외교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를 해당 방식으로 추진하는 점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로벌 기후 협력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논의 동향을 전파 ○ 다양한 기후변화 다자회의체에서 꾸준히 한목소리를 내고 리더십을 발휘 ○ 관계부처와의 협력 제고 노력	
	개선할 점	○ 목표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부수 효과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동북아 환경협력의제를 미세먼지 중심에서 환경 전반(예,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불균형 문제 등) 또는 기후변화대응과 연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후변화대응 외교 업무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대의명분'에서 '국가간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함.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는 외교부에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업무 추진 방향의 새로움을 고민하는 내용이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 기후에너지협력센터의 기능에 대한 구체화, 실질화에 대한 내용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국민소통 강화 업무에서 외교부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을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NDC 설정 등에 있어서 민간의 의견을 보다 적극 청취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기후 논의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 및 대응 관련 논의 동향을 국내에 전파할 필요 ○ CCXG 활동에 치우쳐 있음; 업그레이드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추진 계획이 과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정책정합도 제고는 매우 적절한 목표임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자체평가 결과(의견)를 정책개선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자체평가의견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시행계획상 계획된 사업 33개 중 32개 정상 추진(97%). ○ 계획된 사업 준수율은 97%이나 신규 사업 추진으로 10점 부여 ○ 모든 계획된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
	2-2. 중간단계 환류	4.75/5	○ 상반기 점검시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국제 감축분과 관련된 구체적 실천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간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3/15	○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노력이 우수해 보임. ○ 대국민 소통 강화 업무에서 외교부 특화된 내용을 포함하거나,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업무의 내용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 상황 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음.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공백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고민 필요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30	○ 목표치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이고 이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상으로 평가하는 것에 동의함. ○ 목표치 달성률 123%로 달성도는 달성, 적극성은 최근 3년 추세에 대한 정보 부재로 중, 대표성은 상으로 평가함. ○ 관계부처와의 정책 조정 노력 우수 ○ 우리 입장 개진을 넘어 글로벌 어젠다 선도 노력도 필요
	3-2. 정책 효과성	26.75/30	○ 의도 효과를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상세히 기술한 것이 인상적임. ○ 부수적 효과 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이 없어 평가가 곤란했음.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부수적 효과는 제시되지 않아 보통으로 평가 ○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공백에 따른 우리의 전략 변화에 대한 고민 필요 ○ 기후변화 관련 정책 영역에서의 어젠다 선도 노력 촉진 필요

57	다자환경분야 현안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외교 추진		B+
평가결과	잘된 점	○ CITES 뱀장어 등재 제안서 부결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적 노력의 결과 압도적인 투표차로 성공적인 제안서 부결을 달성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CITES 뱀장어 등재 제안서 부결 건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CITES 뱀장어 등재 제안서 관련 적극적인 외교채널 가동을 통해 국내 소상공인의 불필요한 부담 차단 ○ CITES 뱀장어 등재 제안서 부결 노력 ○ '28 UNOC 유치 성공	
	개선 할 점	○ 특별히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지 않음. ○ '녹색환경·외교'라는 세 단어를 개별적으로, 동시에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녹색환경외교과의 방향성과 업무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자체평가 보고서가 크게 해양, 북극, 플라스틱, 물산업, 후쿠시마 오염수, 녹색경제외교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포함 분야와 '녹색환경·외교'를 함께 고려한 '녹색환경외교과' 중점 업무 영역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 보고서에 포함된 녹색환경분야는 부처 협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 지원 건수보다는 '외교부 입장 반영 건수'를 지표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 별도의 개선·보완 사항 없음. ○ 미국(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 마련 ○ Green Growth는 우리가 OECD에 제안하여 글로벌 Initiative가 된 만큼 '26 OECD 가입 30주년 계기 한국의 리더십 부각 노력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전략·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 연계성·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해양, 북극, 플라스틱 및 물을 포트폴리오로 하는 전략 우수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수립 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자체평가의견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부처협업 및 소통 노력 우수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관리과제의 세부 일정을 적기 완료한 것으로 보임.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모든 일정을 충실히 수행
	2-2. 중간단계 환류	5/5	○ 상반기 점검 시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중간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대부분 의견을 충실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75/15	○ CITES 뱀장어 등재 제안서 부결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적 노력의 결과 압도적인 투표차로 성공적인 제안서 부결을 달성한 것이 돋보임. ○ 인공지능과 물관리 연계 업무는 효과적인 현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황 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음. ○ CITES 뱀장어 제안서 부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25/30	○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초과달성했음을 확인.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임. ○ 보고서에 실린 우수 성과인 뱀장어 부결과 같은 성과물이 부각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면 보다 적극적인 외교부 업무 성과가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목표치 달성을 163%로 달성도는 초과달성, 적극성은 최근 3년 추세에 대한 정보 부재로 중, 대표성은 상으로 평가함. ○ 범부처 정책 조정 및 국민과의 소통 노력 크게 향상 ○ Green Growth에 대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확산 노력 필요
	3-2. 정책 효과성	26/30	○ 실행된 정책이 현장에서 나름 실효성 있게 작동한 것으로 보임. ○ CITES 뱀장어 등재 제안서 부결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국격을 높인 점이 매우 인상적임.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해양 및 북극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대응 우수 ○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의 전략 재검토 필요

58	핵심·신흥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외교 강화		A
평가결과	잘된 점	○ 한-미 간의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노력 및 그에 따른 성과가 돋보임. ○ 인공지능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한 임시 조직 구성 및 업무 추진과 관련된 적극적 업무 추진 방식을 수행한 점 ○ 부처 협업에 대한 노력은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함. ○ AI 등 첨단기술 관련 글로벌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상급 합의를 도출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둠. ○ APEC AI Initiative 합의 ○ OECD AIGO & GPAI 의장 배출	
	개선 할점	○ 국제인공지능외교과가 계속 존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 매우 아쉬움. ○ 2025년 보고서에 기술된 업무의 핵심 주인공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이라고 생각함. '외교부 국제과학기술규범과' 위치에서 인공지능 이외의 첨단기술 전반의 기술적 내용도 점진적으로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의 외교 강화가 실질적인 첨단기술 주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 ○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노력이나, 신융합기술로의 확장 및 국제과학기술규범과와 통합하여 전반적인 과기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25/5	○ 추진계획이 과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과기외교의 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 ○ 과학기술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기반 외교 필요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20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안)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을 최종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자체평가의견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모든 의견을 충실히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계획한 일정대로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임.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계획된 활동을 충실히 이행함

	2-2. 중간단계 현류	4.25/5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 점검 결과를 잘 반영한 것 같음. ○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기술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한·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재개한 점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본과 과학기술협력에 있어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 중간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모든 의견을 적절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15	○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 의견도 충실히 수렴한 것으로 보임. ○ 상황 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음. ○ 국제인공지능외교과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외교 수요에 적극 대처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8.75/30	○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해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 성과지표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임. ○ 목표치 달성률 179%로 달성도는 초과달성, 적극성은 상, 대표성은 상으로 평가함. ○ 국제협력 활동 건수를 넘어 과기외교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 연구 및 기술 안보에 대한 외교적 관심 및 노력 필요
	3-2. 정책 효과성	27/30	○ 당초 의도한 효과는 충분히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국정과제와도 잘 연계되어 있고 향후 효과도 기대됨. ○ 12대 전략기술을 고려한 향후 기대효과가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APEC AI Initiative 및 OECD AIGO & GPAI 의장 배출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임 ○ AI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신흥/첨단기술을 커버할 수 있고, 이들 신흥기술들이 융합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색 노력에 외교적/선도적 노력 필요 ○ 신흥기술 핵심 인력 확보에 외교적 노력 및 관심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1-①	○ ‘비핵화’ 정책의 통일부와의 혼선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조율 노력이 필요	○ 대북정책은 비핵화, 남북관계 및 통일 등 다양한 사안을 포괄하는 만큼, NSC 조율 하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연중)
I-1-②	○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국제 행위자의 지지 확보 필요	○ 주요국 외 글로벌사우스, 국제기구 등 대상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련 협력 추진(연중)
	○ 북한을 외교무대로 끌어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 요구	○ 다양한 북한과의 접촉 기회를 통해 북한을 외교무대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지속(연중)
I-1-③	○ 해외 탈북민 보호 및 지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지표에 더 반영할 것	○ ‘2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시 외교부의 탈북민 해외 탈북민 보호·지원 노력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수정·보완(‘26.상반기)
I-2-①	○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만전을 기할 필요	○ 한미 각급 협의의 지속을 통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후속조치 점검(연중)
I-2-②	○ 활동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 등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원활한 사업 추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등 추진 노력(연중)
	○ 한미의원연맹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 국회, 한미의원연맹 등과 소통하며 필요한 의원 교류 지원 지속(연중)
I-2-③	○ 핵잠 협력 등의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보다 치밀한 대미 협의 필요	○ 핵잠 관련 대미 협의 전담 기구를 설치(‘26년 2월), 체계적·효과적인 대미 협의 추진
I-2-④	○ SOFA 주요 현안 해결 노력 지속	○ SOFA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내 유관부처와의 조율·협력 강화 및 한미 SOFA 채널을 통한 협의 노력(연중)
I-3-①	○ 과거사, 독도 등 갈등 사안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한일관계의 우호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력을 경주해야 함.	○ 활발한 정상급 교류를 한일관계 발전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연중) - 차기 셔틀외교 추진을 위한 당국 간 협의 지속(상반기)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분야별 협력 심화(연중) - 경제, 사회, 인적교류 활성화 등 관련 분야별 당국 간 협의 개시(상반기) ○ 과거사 등 양국 간 현안 관련 진전 노력 지속(연중) - 조세이탄광 관련 발전 유해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 등 구체 절차 협의(상반기)

	○ 또한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관계 심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한미일 협력 공고화로 이어지도록 선순환 도모 노력(연중) - 한일 간 전략적 인식 공유 및 공조 방안 모색(상반기)
I-3-②	○ 인도와의 협력은 방산 협력을 더 심화하고 전략적 차원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어야겠음. ○ 중요도를 판단할 때 인도와의 교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단기성 혹은 특사 방문이 아닌 2+2회의의 정기 개최와 같은 제도화된 교류 체계 구축이 요구됨.	○ 대통령님 방인을 추진하여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추진(연중) ○ 기존에 운영 중인 정례 협의체의 내실 있는 개최를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분야의 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증진(연중)
	○ 소다자 협력체가 활성화 정도가 제한됨. ○ 한인미, 한호일과 같은 소다자 회담이 확인되지 않음.	○ 소다자 협력체 활성화를 위해 IP4(한일호뉴), 한인미, 한호일 간 대화 확대 추진(연중)
I-3-③	○ 중·일과의 기존 협의 채널 지속 가동 등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및 내실화 필요 ○ 한 태도국 고위급 교류 심화 필요 ○ 다양한 회의·포럼 개최를 통한 구제 성과 거양 필요	○ 중·일 외교당국과 지속 소통 예정 (연중) ○ 한중일 3국간 교류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 예정(연중) ○ 제8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SOM) 추진 예정('26. 상반기) ○ 한-IOA 파트너십 세미나를 통한 한-IOA간 실질협력 강화방안 모색 ('26. 하반기)
I-4-①	○ 한중 간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 방안 마련 필요	○ ▲대통령님 국민방중(1.4~7.) ▲선전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 각종 계기에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협력 성과물 창출(연중)
I-4-②	○ 민감현안이 양국관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경주	○ 민감 현안 상시 모니터링 및 사안 발생 시 원칙에 입각한 신속한 대응
I-4-③	○ 한-중앙아 정상회의 미개최 ○ 공급망 구축, 우리 기업 진출 등 실질 성과 도출 위한 노력 필요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예정(26년 하반기)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공급망 협력, 기업 수주 지원 등 기업, 민생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 거양(26년 하반기)
II-1-①	○ 해양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지표 개발 필요	○ '2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교류의 실질성과를 질적·양적으로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26년 상반기)

II-1-②	○ 동남아 온라인 스캠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예방 노력 필요 ○ 유스그룹 워크숍의 규모 확대 필요. 2025년 30명 참가에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확대	○ 대륙 동남아 국가와의 상시 소통 강화를 통해 온라인스캠 등 초국가범죄 현황 파악 및 공조 지속(연중) ○ 2026년 관련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 참석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집행 효율 극대화(연중) ○ 2027년 예산 편성 확대 노력(연중)
II-1-③	○ 우리 정부 對아세안 정책 지속 홍보 및 협력사업 발굴	○ 국내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다이얼로그(5월)를 비롯, 아세안 각급 협의체 참석 계기 ▲전문가 언론 기고, ▲유관기관 협업, ▲SNS·동영상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 우리 정부 아세안 중시 기조 및 협력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학계 등 민간을 통한 협력사업 적극 발굴(연중) * ▲공동협력위원회(JCC), ▲다이얼로그, ▲고위관리회의(SOM), ▲외교장관회의, ▲정상회의 등
	○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성실한 이행	○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발전 비전 下 행동계획(POA) 2026-30의 분야별 내실 있는 이행 및 아세안 각급 협의체 계기 현황 점검 등 노력 지속(연중)
II-2-①	○ 고위급 성과의 '후속 이행(프로젝트 착수, 계약, 제도화)'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성과의 질 제고)	○ 국가별 고위급 회담 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연중) ○ '26년 對남미국가 정상·고위급 회담 등 계기 상기 데이터베이스 기반 진전상황 관리(연중)
II-2-②	○ 콜롬비아, 멕시코 등 주요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필요	○ 고위급 교류 강화(연중) ○ 실질협력 분야(우주, 디지털, 에너지, 개발협력 등) 유관 행사 개최(연중)
II-2-③	○ 청년 서포터즈 및 중남미 파견 인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인턴 파견 사전 오리엔테이션, 파견 중 업무·생활 관리, 파견 후 파견자 네트워크, 중남미 관련 행사 초청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친 관리 강화(연중)
II-3-①	○ 서유럽 내 한국 전문가 양성 노력	○ 우리 정책 홍보 및 지지 확보를 위해 주재국 인사 초청사업, 학계 인사 교류 등 다각도 아웃리치 실시(연중)
II-3-②	○ 성과지표(중유럽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야별 수주·진행·완료 등 전 단계 지원 건수) 단계별 분리 제시 필요	○ '2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단계별 분리가 적합하도록 성과지표 보완하여 반영 ('26년 상반기)
II-3-②	○ 중유럽 전략 분야 협력 향상에 대한 EU 차원의 견제에 대한 대응 준비 노력 필요	○ 對EU 각급 교류 계기 전략 분야 협력 관련 우리 입장 의제화·교섭 등 적극 대응 전개(수시)

II-3-③	○ 한-러 외교채널의 지속적 관리	○ 우리 기업 권익 보호 등 양자 현안 논의를 위한 대러 소통 지속(연중)
II-4-①	○ 정세예측이 어려운 지역 특성상 모니터링 등 강화 필요	○ 지역 정세 모니터링 지속 및 선제적 대응 조치 실시(연중) - 2차관 주재 이란 상황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26.1.13, 16.) 등 본부-공관 간 소통 강화(연중) - 이란 상황 관련 대변인 논평(26.1.15.) 등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입장 적시 발표(연중)
II-4-②	○ 한-GCC FTA, 한-UAE CEPA 조속 비준 필요	○ 한-GCC FTA는 가급적 조속히 서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속한 검토 및 GCC 측과의 협상 진행 독려(계속) ○ 기서명된 한-UAE CEPA의 경우 국회 비준 절차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26.상반기)
	○ 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의 실질협력 사업 발굴 노력 지속	○ 방산·AI 등 우리와 걸프·마그레브 지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협력 증진 적극 지원(계속)
II-4-③	○ '對아프리카 양·다자 협력 확대' 지표 성과 확대 노력 및 보고서 내 국가별 맞춤형 양자 외교 성과 적극 포함 필요	○ 2026년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및 개별 국가와의 고위급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성과를 보고서에 적극 포함 예정
	○ 대아프리카 지역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기여 필요	○ 2026년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계기 우리 외교 다변화에 기여하는 對아프리카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 예정
III-1-①	○ 외교부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	○ 대국민 확산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홍보 수단(뉴미디어 등)을 모색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전개 예정(연중)
III-1-②	○ 한국 인권외교 리더십 대국민 홍보 필요	○ 외교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인권외교 활동 대국민 홍보(연중)
III-1-③	○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신규 의제 심화 대응	○ 한미 원자력협력 TF를 중심으로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관련 대미 협의 추진(~26.12월)
III-2-①	○ 사이버 및 신흥안보 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기여 방안 마련	○ (양자)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과의 양자 사이버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한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상반기)

		○ (다자) UN NATO, OSCE 등 주요 국제·지역기구와의 사이버·신흥안보 실질협력 강화 - 사이버·신흥안보 위협 포함 다양한 의제를 바탕으로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1월) - UN Global Mechanism 조직회의 참석(3월) -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 개최(연중) 등
III-2-②	○ 국내 전문가들과의 협업 및 환류 지속적으로 추진	○ 군축비확산 자문위원회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군축비확산 외교 점검 및 수시로 정책 보완(연중)
III-2-③	○ 수출통제 및 제재 분야에서의 성과 목표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어려운 분야이므로 정량 성과목표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지표 또한 고려할 필요	○ '2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성과지표를 개선·보완하여 정성평가 측면(정책 기여도,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26.상반기)
III-3-①	○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부서의 노력이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항목을 고려할 필요	○ 예상 수혜자 수, 부처·기관별 조약 MOU 체결 수와 분야별 국제협력 업무에의 기여도 등 정성적 평가항목 추가 검토(연중)
III-3-②	○ 국민 대상 국제법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프로그램은 개최 횟수에 집중하고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국민 대상 국제법 프로그램 관련 정성적 측면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도 개발하여 반영(26.상반기)
III-3-③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정례화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유관부처·기관 간 정례 협의체를 강화하고, 국내외 학계·정부·법조계 등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정례 행사 추진(연중)
III-4-①	○ 우리 주도의 개발의제에 대한 리더십 강화 및 역할 홍보 지속	○ 국정과제 및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 계획에 기반한 '개발효과성' 등 우리 주도 의제 확산 및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해 국제개발논의 적극 참여 및 홍보(연중)
III-4-②	○ 민간부문과 협업 시 투명성, 책무성 등에 대한 지속적 교육에 관한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 ○ CDA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해당사자들 의견수렴이 정례화될 필요가 있음.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민간 부문을 비롯한 무상원조 사업 책무성 강화 방안 반영 추진(26. 상반기) ○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외교부·시민사회 정책 대화 등 정례 개최(연중)
III-4-③	○ 한국의 시그니처 ODA 사업모델의 개발 필요	○ '25년 발굴한 KOICA 시그니처 프로그램 3건 지속 추진(26년중) ○ 프로그램 이행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26년중)

Ⅲ-4-④	○ 플래그십 사업 도입 전후 성과 비교 분석 필요	○ 분기별 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현지 모니터링 추진 등 플래그십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 중(연중)
	○ 다자협력 주요 파트너로서 활동 가능한 지속적 방안 확보 필요	○ 주요 국제기구 회의 참여 등 기구 거버넌스 활동 강화(연중)
IV-1-①	○ 공공외교총괄과의 자체 사업 개발 노력이 여전히 미흡	○ 「국민 공공외교 포럼」 및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사업」 등 국민 공공외교 신규 사업 추진(~'26.12월)
IV-1-②	○ 지식공공외교 발전 방안 검토 필요	○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어 확산 업무의 통합·조정 체계 마련(연중)
IV-1-③	○ 문화교류협력과가 주도하거나 발굴 해내는 K-콘텐츠 사업 추진 필요	○ K-이니셔티브 확산에 기여하는 재외공관 신규사업 발굴 및 실시 (연중)
IV-1-④	○ 정책공공외교 주제 및 대상 다변화 노력 필요	○ 글로벌 사우스 지역 및 신흥안보 관련 사업 예산 배정 및 집행을 개선 노력 지속(연중)
IV-1-⑤	○ 콘텐츠의 양보다 질 향상에 노력 필요	○ K-이니셔티브 관련 콘텐츠, 국내 AI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AI 콘텐츠 등 폭넓은 콘텐츠 제작 추진(연중)
IV-2-①	○ AI를 활용하여 후보자들이 함께 협업 하는 교육 마련 필요	○ AI외교역량실무 과목 신규 개설 ('26.1~3.) - 외교업무에 활용가능한 AI 도구를 구성·활용하는 협업 실습 진행
	○ 급변하는 기술 안보 및 경제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특강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심화 전문과정을 더욱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	○ 신흥안보·과학기술 외교, 국제통상, 경제안보 등 신외교분야 과목을 외교관후보자 과정 정규과목으로 심화 개설('26.1~7.) - 동 과목참여형·토론형 수업으로 개편하여 교육생들의 대응 역량 강화
IV-2-②	○ 연구결과물 배포방식 개선을 통해 학계 및 대중의 접근성 강화 및 비용 절감 추진	○ 연구결과물의 PDF 및 링크 제공을 통한 접근 편의성 강화 및 예산 효율화 노력 지속(연중)
IV-3-①	○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의 실효성 강화 필요	○ 해외 위난상황 등 발생시 사안별 맞춤형으로 적시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정기 개정 추진(~'26.중)
	○ 우리 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대한 적극적 선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 필요	○ 공관 비상주 국가 및 원격지에서의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영사협력원 증원 (~'26.상반기) - '26.1.1. 영사협력원 19명 신규 위촉 완료 → 5명 내외 추가 증원 예정

IV-3-②	○ 국장급 영사협의회 개최 시 재외국민보호 등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한 포괄적 논의 필요	○ 영사협의회의에서는 우리 국민 출입국·체류 편의 증진 등 영사서비스 관련 현안 외에도 재외국민보호, 형사공조 등 다양한 영사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는바, '26년도에도 각국 정부와의 영사 현안 전반 포괄적 논의 지속
IV-3-③	○ 대행기관 등에 대한 지속 감독 및 점검 필요	○ 대행기관 지도점검을 통한 업무 전문성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연중)
V-1-①	○ 미국 G20 준비 과정에서 사전에 전문가 의견 수렴 ○ '26년 OECD 가입 30주년 행사 준비	○ 미국 G20 주요의제(무역, 혁신, 에너지풍요)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연중)
		○ OECD 대표부와 가입 30주년 기념 사업 추진 예정(연중)
V-1-②	○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신흥국들과 경제협정을 적극 추진	○ 정상회의 계기 등 활용, 자원 부국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신흥국들을 발굴하고 신속한 협상 추진(상반기)
V-1-③	○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향후 실천계획 수립에 많은 고민 필요	○ APEC 정상회의 성과(AI, 인구)를 국내 정책과 연계하여 실효적인 이행 방향 도출 및 역내 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연중)
V-2-①	○ 세부일정 준수를 상대적으로 미흡 ○ 동아시아 경제권 블록화 대응 방안 고민 필요성 ○ CPTPP 가입 추진, RCEP 고도화 등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필요	○ 25년 연기된 행사 정상추진 예정('26.상반기) ○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지속(연중) ○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노력 지속(연중) - CPTPP 가입 추진 등 시장 다변화 노력 지속(연중)
		○ 캐나다 관련 경제분야 추가 성과 도출 필요
V-2-②	○ 해외건설·방산수출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수출 수주를 위한 협력 강화	○ 금년 중 한-캐 간 장관급·국장급 등 고위급 교류 지속 추진(연중)
V-2-③	○ 해외건설·방산수출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수출 수주를 위한 협력 강화	○ 「수출·수주외교지원단」 내 인프라 방산 분과 활동 강화(연중)
V-2-④	○ 핵심광물과 더불어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과 협력 의제를 도출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팍스 실리카 서밋 등 글로벌 AI 공급망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연중) -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입지 강화를 위한 구제 협력 방안 발굴 추진 ※ 팍스 실리카 서밋(PSS) : 25.12월 미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유사입장국간 경제안보 협의체
V-3-①	○ 기후에너지협력센터 기능 구체화 및 실질화 필요	○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후 및 청정에너지 관련 최신 동향 전파 역할 강화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연중)

V-3-②	○ 부처간 실질적 협업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체계 개선	○ 단순 참석건수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반영
V-3-③	○ 인공지능 이외 첨단기술 분야 외교 확대·강화 ○ 핵심·신흥기술 관련 기업과의 소통 강화 ○ 전문인력 강화를 통한 과기외교 노력 강화	○ 우주, 쿼텀, 바이오 분야에서 기술 성숙도·대외 환경·민간 수요를 반영한 외교 강화 - 국제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에 더욱 적극 참여 ○ 산·학·연 전문가 면담 및 세미나 강화를 통한 민간 수요 파악 지속 노력 ○ 과학기술외교(AI 분야 포함) 인력·조직 확충을 통해 관련 외교부 역량을 배가시켜나갈 예정(연중)